

#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 관리자 · 고졸채용 / 청년인턴

20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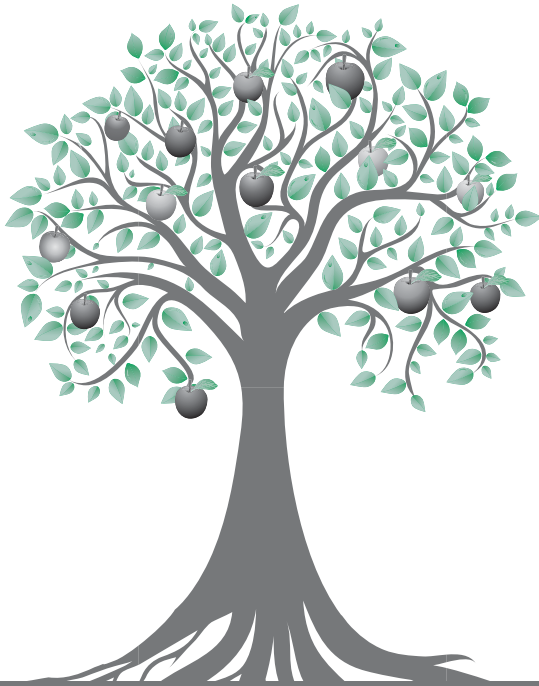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PF 한국포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 관리자 · 고졸채용 / 청년인턴

2013.10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목차



## I PART ————— 시간선택제 일자리

1. 암 투병중인 아내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 6
2. 천천히..., 그러나 긴 호흡으로 10
3. 일과 가정의 양립, 단시간 근로제 15
4. 육아·학업을 동시에 해결해준 나의 일자리 23
5. 복 많은 우리 쌍둥이 28
6. 당당한 워킹맘과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 곳 33
7. 내 삶의 보물을 다시 찾아준 시간제 근무 37
8. 제2의 인생 시작에서 만난 시간제 근무 43  
- 머지않은 나의 미래로의 시간여행 체험!

# II PART

## 여성 관리자

1. 야전 사령관이 된 나의 29년 일기 50
2. 롤 모델이 되고 싶다 57
3. “오 마이 갓” 63
4. 아이들, 생각보다 강해요!! 육아로 사직? NO!! 66
5. 여성을 위한 회사는 없다 73  
- 함께 행복한 회사 만들기
6. 일·가정의 양립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 80
7.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86
8.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92



# III PART

## — 고졸채용/청년인턴

1.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2. 꽃들에게 희망을 107
3.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청년인턴 113
4. 국민이 행복한 무한도전 119
5.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 125
6. 청년인턴, 넝쿨째 복이 굴러 오다 133
7. 한계는 없다. 준비하고, 도전하자 139
8. 청년인턴, 새로운 산을 발견하다 145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PART

# 시간선택제 일자리



1

## 암 투병중인 아내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

이○○/한국철도공사

저는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43살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꿈꾸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나 신분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의 결혼을 결심한 사랑스런 아내,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의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화목한 저희 가정에 2012년 3월 2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갑자기 턱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퇴근을 한 시간 정도 남기고 영문도 모르는 저에게 장모님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남 여수에 소재한 집 근처 종합병원에 아내가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종합검진을 받는 내내 초조하게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아무 일 없을 거야.”라는 위로의 말뿐 달리 해줄 게 없었습니다. 종합검진을 마친 후 의사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처방 없이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내는 내내 침묵으로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지낼 옷과 물품을 챙기면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 갑작스러운 아내의 암 진단, 그리고 투병

입학한 지 얼마 안된 철없는 둘째 아이는 엄마가 퇴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지 엄마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 깊은 첫째 아이가 오자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푹! 떨어지자 온 가족이 부둥켜 안으며 참고 있었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마친 후 의사선생님께서 ‘림프종’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말씀하시면서 혈액암의 일종이니 바로 항암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항암제가 투여되었고 그렇게 아내가 호소하던 턱과 가슴의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오진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두 딸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장모님은 아내의 간호를 위해 서울 병원생활을 하시고, 어머님은 우리 집안일을 위해 시골집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빈 자리는 실로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나왔는지, 건강했던 둘째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질문해 속상한 적도 있었고, 착신했던 큰아도 짜증을 자주 부려서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6번의 항암 약물치료와 10번의 방사선치료가 거의 완료될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신 장모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쓰러지신 것입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딸의 병간호를 또 다시 하다 보니 마음의 병과 병원생활의 힘든 과정을 몸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장모님은 여수로 내려오시게 되었고 제가 아내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 생계며 병원비며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는 생각이 들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휴직 대신 선택한 단시간 근로제

평소 유연근무제는 내 일이 아닌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기 힘든 여성들이 활용하는 줄만 알고 관심이 없었는데, 소속장님에게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꼭 저에게 맞는 제도라 생각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단시간 근로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에서 일근으로 바뀌었으며,

주로 소속 직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걱정을 하면서 현장근무를 하다 보니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유연근무제를 하면서부터는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인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 다른 직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일을 사전에 예측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마음 편히 유연근무를 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저의 업무를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의 숙제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면서 아내를 보살피다 보니 아이들도 명랑하게 생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병까지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유연근무제를 통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관처럼 동일한 직종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자칭 ‘공간근무제’라 하여 일정 기간 타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

## 천천히..., 그러나 긴 호흡으로

고○○/한국산업단지공단

세상에는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범주에 드는 것 중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 출산 같은 일들이 들어갈 것 같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의 당사자가 되어 보면 다른 평범한 모든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우는 것 같은 일들이 실상 너무나 막막하여서, 망망대해에서 엔진 고장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 같거나 끝도 없는 모래사막에 혼자 나뒹굴어진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무척 황망하기 짝이 없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나는 이제 몇 막까지 왔을까. 이제 한 막이 끝나고 다시 한 막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같은 기분이 든다. 어떤 소설가가 '나도 한때 자작나무를 탔다' 거나 또 다른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소설이나 시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목만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 내게도 빛나던 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스무 살, 청춘의 절정이라고 여겼던 나날들. 그때는 왜 이리도 암울하고 우울하고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은 회색빛이었을까.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모습 그 자체로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나였을 텐데 말이다. 이제 천천히 그 네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아름답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내 스스로 절정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잠 못 이루었던 나날들. 침대와 이십대를 관통했던 성장통은 지금 내게 얼마 만큼의 자양분이 되었을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본다.

### 워킹맘, 전업맘 그리고 알파걸

그런 성장통이 잦아들었을 쯤에서야 나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비로소 2세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내 머리가 들끓고 주체할 수 없는데 어찌 아이를 낳아 키우나 하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주위에서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 키우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내게도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2009년 첫 아이를 낳았을 무렵, 세상에 ‘알파걸’ 어찌고 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전업맘과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나는 단지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일 뿐 알파걸 근처에는 발짝도 떼지 못한다는 건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는 출산 과정의 지난한 무용담은 아이를 낳아 본 여자라면 다들 훌륭한 레퍼토리가 있을 터, 나 역시도 이틀간의 유도분만 끝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아이가 내게로 왔다. 너무나 힘들게 만난 터라 아이와 만난 기쁨보다

도 왜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가 하는 자책이 더 앞섰던 것 같다. 그 래도 낳아보니 ‘아이구, 이쁜 내 새끼’가 저절로 나온다.

다행히도 첫 아이를 낳고 회사에는 3개월의 출산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 직을 내어 아이가 돌 즈음이 될 때까지는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 그 때만 해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이제 막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였기 때 문에 그나마도 많은 고민 끝에 휴직계를 내었다. 둘째 아이까지 낳은 지금 와 보면 그렇게 고민을 하나 안 하나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고달픈 일인데 그렇게 힘들여 밤잠 못 자면서까지 고민을 더 했나 싶다.

첫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 새로운 발달 단계를 보여줄 때마다 세상 모 든 엄마가 그렇듯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 힘든 줄도 모르고 매일 아이 옷을 삶고 기저귀를 빨고 이유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복직날이 눈앞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를 알고 막 걸음마 를 떼고 세상에 더 없을 천사로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회사로 복 귀하려니 정말 마음이 소금밭이었다.

울고 매달리는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그렇 게 미어지는 가슴으로 출근길에 나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시간은 흘러 아 이는 어엿한 다섯 살 개구쟁이로 자라났다. 인간은 진정 망각의 존재이려 나. 그렇게 혹독한 육아의 시간을 겪어 놓고서도 아이가 자랄수록 동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갔다. 나 역시도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엄마인지라 대한민국 엄마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동생, 형제에 대한 고민이 절정을 향해 가던 2012년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또 한 생명이 내게로 찾아왔다.

축복과 기쁨으로 설레기만 해야 했던 그 시기가 내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이제 회사에서 미드필더와 같이 일에서 점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승진도 해야 하는데 다시 치러야 할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니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압담해 하나 하는 자조가 들다가도 슈퍼맨 아니 슈퍼우먼도 아닌데 워킹맘으로서 둘을 건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지레 앞서는 것이었다.


### ‘엄마’로서의 시간을 위해 선택한 시간제 근무

결국 점점 불려오는 배를 부여잡으며 출산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출근했고 올 3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신의 영역인 것이 확실하다. 내 몸에서 왔지만 내 몸을 빌린 이 존재는 아주 왕성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며 지금은 기어 다니며 걷기 위한 다음 단계를 때에 맞춰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의 출산휴가와 짧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일찍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회사의 배려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도 종종 시간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있었지만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오후 2시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다시 젖을 물리고 큰애를 위해 저녁밥을 짓고 같이 한글 공부한다. 회사 내 워킹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시간들을 잘 채워가야 할 것임을 너무 잘 안다.

두 아이를 낳고서야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아직 내 안에 ‘내’가 더 많았던 것이다. 둘째를 낳고서야 내가 ‘엄마’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비워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겁도 없이 엄마가, 두 아이의 엄마가, 그것도 일하는 엄마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나도 이제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 간다. 앞으로도 정신없이 이어질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나이의 앞자리가 또 바뀌어갈 것이다. 내게 찾아온 두 보물들, 정말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그런 마음이다. 이런 그림고도 사랑스러운 존재를 돌씩이나 갖게 되어서 잘한 일인지 잘 못한 일인지 그 끝에 가서야 알 수 있을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인생의 많은 갈래길에서 참 많이도 헤맸던 것 같다. 여기가 살 길인가 가 보면 막다른 길이어서 더 멀리 돌아오길 반복했고, 뒤돌아보면 갈지자 행보로 실수투성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완벽해지고 제대로 살아낸 결정은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약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를 맞이하여 함께 성장하는 길, 엄마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절정의 나날들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을 이어 받아 나도 기꺼이 내 앞에 다가올 시간들을 헤쳐나갈 것이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약하지 않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3

## 일과 가정의 양립, 단시간 근로제

전○○/한국국제교류재단

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 인이자, 결혼한 지 1년이 갓 넘은 새댁이고, 배 속에 7개월 된 아기를 갖고 있는 예비엄마이다. 나의 하루는 오전에는 직장에서의 일로, 오후에는 살림과 태교로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일과 경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월급에 반 토막 경력, 승진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내 일도 내 가정도 모두 중요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내 경력을 꾸준히 이어가면서도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감사한 자리이다.

### 경력을 이어 가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단시간 근로제

지금의 재단에 입사하기 2년 전인 2010년, 나는 5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국제대학원에 진학했다.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고 나니 보다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더 키워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진학 후 오랜만에 느끼는 캠퍼스의 여

유와 뒤늦게 불붙은 공부의 재미도 잠시, 나는 곧 내가 ‘취업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나는 그저 내 분야, 내가 앞으로 더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지식, 통찰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대학원 졸업할 즈음의 내 나이와 나의 상황, 재취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대학원 4학기가 지나고 취업을 생각할 2011년 말이 되자 나는 ‘31살 나이를 가진 결혼 적령기의 여성 구직자’가 되어 있었다. 5년의 경력과 대학원에서의 좋은 성적도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에게는 취업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되지 못했다. 나는 또래의 다른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고민하게 되는 시기에 취업을 하려 하고 있었고, 그런 경우의 여성 직장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분명 채용을 꺼리게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점점 취업의 벽을 실감하던 중 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지금이야 언론을 통해 연일 ‘시간제 일자리’가 언급되면서 이러한 일자리 형태가 사람들에게 점차 익숙해져가는 중이지만, 내가 그 채용공고를 접할 당시만 해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 자체와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합격하게 되면 직장인으로서의 내 일상이 어떻게 변하고 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등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단지, 나의 조건을 덜 심각하게 고려할 공공기관이라는 것,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정규직이라는 것, 내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로 생전 보고

듣지도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에 지원하게 되었다.

단시간 근로자이긴 했지만, 모든 채용 과정은 동일했다. 1차 상식과 논술, 한영번역, 영한번역의 시험이 있었고, 2차에는 프리젠테이션 시험을 거쳐 3차 임원면접이 있었다. 3차 임원면접에서 단시간 근로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이러한 근로형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던 나는 어학 등 자기계발에 활용하겠다고 대답하며 지금은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지만 향후 보통의 전일 근무자로 전환해 근무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와 고충들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해 보냈던 첫 1년은 나에게도, 회사에도 처음이라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논문 제출을 미뤘던 나는 오전에 논문 쓰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오후 근무를 선택했는데, 일단 모두가 한창 근무하고 있는 시간인 오후 2시에 출근하는 것부터가 나나 부서원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맡았던 사업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외부관계자들에게 오전에 연락이 오면 부서원들에게 행여 폐가 될까 핸드폰으로 착신 전환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 자연스레 오전 중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했다. 업무적으로 내가 필요한 때가 오전일 때 부서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부서에서는 나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배정하려 노력했지만 부서업무의 성격상 완전히 단시간에 적합한 업무가 주어지

기는 어려웠고 중요한 담당사업을 앞둔 1~2주 정도는 불가피하게 전일근 무나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도 했다. 재단의 주요 행사나 교육일정은 전 직원 중 2명뿐인 ‘단시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고려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오후 출근이지만 오전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때로 단시간 근로자라는 형태 자체가 익숙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나 외부관계자에게 미팅일정 등 조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초과근무 시 식비 제공 부분이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전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지 등 처음 ‘단시간 근로자’라는 제도를 마련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일들이 생겼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떠한 규정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추어 부서장 재량으로 조율하거나 나 스스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야 했다.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내 업무 지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퇴근할 때까지 한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서 내의 유일한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서 오는 고충들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누기도 어려웠다. 하루 중 오전의 공백으로 부서 내 중요한 소식을 놓치거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제’라는 형태가 나에게 주는 만족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컸다. 단시간 근로로 일하는 동안 나는 취업준비를 위해 미뤄두었던 논문을 마무리하고 대학원을 무사

히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별도의 휴가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결혼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오전 근무로 시간을 변경하여 퇴근 후 장을 보거나 청소, 빨래 등 집안 살림을 미뤄두지 않고 챙길 수 있었고 공과금 납부나 은행업무 등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에도 좋았다. 임신 초기에는 쏟아지는 잠을 집에 돌아와 편안한 침대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임신 중기 이후에는 퇴근 후 태교에도 신경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점은 임신을 계획하면서, 출산 이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복직한 이후에도 아이는 어린이 집에 만나절만 맡기면 퇴근 이후인 오후 일찍부터는 내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주변의 경우만 보아도 90프로 이상의 지인들이 결혼이나 임신을 계기로 상당수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육아를 위해 재취업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한다 해도 아이를 돌보거나 맡기는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님, 배우자와의 마찰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역시 재단에 입사지원을 결정하기 전 재취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내 분야에서 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출산과 육아를 위해 취업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일을 택하자니 내 나이가 결혼이나 출산을 미룰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니었다. 경력이나 삶의 질

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도 종종 보았지만, 나에게서는 내 일만큼이나 내 가정, 내 아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오랜 꿈이었다.

단시간 근로제는 이러한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만일 내가 보통의 전일 근무자로 취업했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까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후에는 결국 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반일 근로자인 지금의 나에게서는 육아가 퇴직을 고려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되어야


반일 근로자로서 사내에서 초기에 겪었던 불편이나 고충들 또한 사내에 관련 규정들이 점차 마련되고 부서와 외부 업무관계자들도 나의 업무형태에 익숙해지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역시 시간 관리나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요령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 무엇보다 부서 내에서 나의 근로형태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반일 근로자로 적응하는 데 더 수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나 때문에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거나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준 부서원,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요즘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많은 기사와 댓글들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게 된다.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를 파트

타임으로 인식하고 부당한 처우나 급여문제, 승진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다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지난 2년간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나의 실제 경험에 비춰볼 때, 나는 시간제 일자리가 적어도 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모두 놓아버리게 되는 선택을 재고하게 해줄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제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에는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다. 선택하는 사람에게 경력의 단절이나 아니면 다소 다른 처우가 예상은 되겠지만 일과 가정의 병행이나의 단 2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면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다른 처우를 감수하고서라도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만약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정말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를 정말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자가 의지를 가지고 당면할 시행착오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또 시간제 근로자만으로 팀이 꾸려지지 않는 이상 전일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가피할 텐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전일 근로자가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간에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단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위한 캠페

폐인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효율적인 직무설계 등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 육아·학업을 동시에 해결해준 나의 일자리

박○○/환경기술공단

나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주부로서의 의무와 육아 때문에 잦은 이직과 실업을 되풀이해 왔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나이든 여성의 일자리에 인색한 편이다. 특히 중간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지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언제나 처음 그 자리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 일을 했다. 결혼을 하고도 건설 관련 일을 했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똑같은 기술직이어도 대우가 남성과는 달랐다. 물론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자 해도 ‘토목’이란 직업의 속성상 나의 취업의 문은 개방적이지 못했다. 건설직은 여성으로서 취업의 문은 한없이 좁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는 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철야근무로 육아를 곤란스럽게 했다. 토목설계직은 도서납품기일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시 퇴근은 힘들다. 이런 일로 회사를 관둔 것이 여러 번이었다. 집 근처에 직장을 구했으나 경영위기로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

다. 일을 계속 해서 경제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나를 부담스러워 했다. 여러 번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답이 없었다. 사실 난 토목일(설계, 공무)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의 경력을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지만, 나이와 주부라는 핸디캡은 나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나는 기술자로서의 경력이 이제는 내 생계를 이어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의 잦은 이직이 모두 주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이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가 적은 나는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올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갔다. 여성이라 기회가 적었던 건설업에서 여성들의 전유물인 유아교육으로 분야를 바꿔 새로운 취업의 문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 여성 건설 기술자 경력을 버리고 새로 찾은 일자리

나는 올해 1년에 걸친 실업기간을 극복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할 수 있었다. 학업을 하는 기간에도 나는 육아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일자리를 알아봤다. 마침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남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지원했고, 다행히 출근할 수 있었다. 나는 현장사무실 내 감독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물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지난 경력과 상관없는 행정일이다. 내가 이곳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 한 분이 질문했던 것이 기억난다.

“토목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전공에 맞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이젠 더 이상 토목일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토목일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설계직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입사할 수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만족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2015년 11월까지 근로계약을 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만족한다. 월급은 지난 날 내가 하던 일에 비하면 많이 적지만,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출근하고 있다.

행정일이란 것이 단순한 업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사업비에 걸맞게 현장에 필요한 경비도 계산해야 하고, 특히 전화는 친절하게 받아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응답으로 대처해야 한다. 나는 특히 인사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다. 어디서나 즐거운 미소로 인사를 하고 다닌다.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므로 조금은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대인관계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은 법,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분위기를 바꾸어 가려고 노력한다면 대인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용지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 사무실이 시공과 관

련하여 부산해졌다. 그래서 나는 행정업무 외에도 지난 경력을 살려 설계 도서도 검토하고 있다. 얼마 전 다른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 건으로 가시설 실정보고가 올라왔다. 감독실은 당연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심하는 것 같았다.

“○○씨가 도와줄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도서의 타당성과 시공비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심히 검토했고 사업비를 6천만 원 정도 감액할 수 있었다. 주감독님도 뿌듯해 하셨고, 나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았다.

## 자존감을 되찾게 해준 근로시간 선택제

지난날 나의 경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인정받았다는 그 기분을 알 것이다. 얼마 전 ‘내가 뭐하러 토목과에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했었는데 그래도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감독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규칙적인 퇴근시간으로 나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의무를 충분히 하고 있다. 또한 공부도 병행할 수 있어서 현장이 준공되더라도 공부를 마치고 이와 관련된 유아교사로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아마 그동안 내가 했던 설계직 일을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기술자로서 대우는 받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 선택제라는 일자리는 내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다. 우선 경력이

있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 실업이라는 텃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주부로서,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갖게 해주었고, 바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얼마 전 남편에게 당당하게 “나도 돈 버는 여자야.”라고 말했다. 실업기간 내내 수입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남편도 심적 부담을 덜 느끼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를 많이 응원해 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도 여성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어서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곳에서 찾는 일은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한다. 이 행복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며, 더 이상 실업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5

## 복 많은 우리 쌍둥이

오○○/국민연금공단

복직을 몇 달 앞두고 나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아이들은 다행히 몇 달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나의 몫이다. 9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8시 20분에는 나서야 할 텐데, 8시에도 일어날까 말까 한 28개월짜리 남매 쌍둥이를 어떻게 깨우고 입히고 달래서 데려다 줄 것인가. 두 아이들이 잘 협조해준다 하더라도 30~40분은 걸릴 텐데, 누구는 배가 아프네, 누구는 밥을 먹고 가겠네, 떼를 부리면 시간은 하염없이 또 늘어질 것이다. 거기다 어린이집에 도착해도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을 시간이라 안아주고, 읽어 달라는 책 읽어주고 나오다 보면……. 휴~~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우리 둥이들은 밤에도 꼭 한두 번은 깨는 바람에 아침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피곤한데 그 상태로 회사에 가서 일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1년 더 해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플 즈음 회사에 있던 언니한테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단시간 근로제라는 게 생겼어. 한번 알아봐. 아직 몇 명 사

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사에도 이거 이용하는 사람 있어.’ 어? 용어도 생소한데 뭘까? 그때부터 나는 바빠졌다. 본부에 요청해 단시간 근로제에 대한 문서를 받아놓고 보니 아,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양육이나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하루 8시간이 아닌 그 절반인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물론 급여야 그에 따라 적어지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시기가 사람마다 있을 것이다. 특히나 나처럼 맞벌이 부부에 양가 모두 도움받기 힘들다면 말이다.

### 더 다양해진 단시간 근로제 유형

또한 오전형, 오후형 등이 있어서 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엉망인 집안을 정리하고, 나도 조금은 쉬었다가 가려면 2~6시까지 하는 오후형이 딱이구나.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 6시에 끝나서 데리러 가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데려가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구나 싶었다.

마음을 정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다. 아이들 등원시간이 같을 거라고 하니 ‘어머니, 복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묻는다. ‘네. 그런데 오후만 근무해요.’ ‘어머,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회사네요.’ ‘하하. 네. 그렇죠?’

복직을 며칠 앞두고 또 다른 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단시간 근로제 시간 유형이 추가된 것 같아.’ ‘어, 그래?’ 알아보니 시간 유형이 더 다양화되어서 1시부터 5시까지도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딱 내가 복직하

는 7월에 시행된다고 하니 이미 올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이 유형으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렀다 다른 애들과 같은 하원시간에 데리러 갈 수 있다. 정말 우리 동이들은 어쩔 이렇게 복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했다.

### 오후 출근이 주는 여유와 행복

이제 복직한 지 3달 정도가 지났다. 아이들도 나도 모두 바뀐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 오후에 출근을 하다 보니 아침에 잠도 못 깬 아이를 다그쳐서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에서 헤어질 때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수 있다. ‘엄마, 꼭 껴안고 뽀뽀 다섯 번~’ 병아리 같은 딸내미의 말에 ‘엄마 이제 가야 해.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커서 인지도 모르지만 여유 있고 기분 좋게 헤어지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씩씩하게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선생님께 갈 줄도 안다. 그 모습을 보고 출근할 때면 단시간 근로제를 이용하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다 아이들이 늦잠 자는 날이면 조금 더 재우고 갈 수도 있고, 밤새 원인 모를 열이 나고 아프면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 갈 수도 있다. 그냥 아픈 아이를 억지로 떼놓고 출근했다면 업무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회사 동료나 상사 분들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라 눈치를 주거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점이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참 흔한 말인데 나에게 아이가 없을 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아이가 있는 회사 선배 언니들이 아침마다 부스스하게 나올 때마다 '아, 그럴수록 더 꾸미고 나와야지. 그러니 아이 있는 엄마들을 회사에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언니들은 아침마다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로 나왔던 것일까,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시 가사에 육아까지... 정말 끝나지 않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던 거구나 싶다.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엄마만 찾으면 방법이 없다. 또 아직까지 대한민국 남자들이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기란 사회적, 정서적 여건상 힘든 게 사실이지 않은가.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까지 생각한다면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다행히 아이들을 남편 회사의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고, 우리 회사의 단시간 근로제를 이용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가장 힘든 산을 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지 않은 출산·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니 남편 회사나 우리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도 소수가 이용하는 제도이니 만큼 내가 더 잘해야 더 많은 사람들, 또 나의 후배들이 이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겠구나 싶어서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우리 회사의 단시간 근로제가 더 좋아진단다. 시간도 일 4시간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4~7시간까지 다양화된다고 하니, 아이들도 크고

나도 업무에 대한 적응이 어느 정도 된다면 조금 더 근무할 계획이다.

엄마들마다 가치관이나 성향 등이 다르겠지만, 나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엄마가 느끼는 성취감, 자존감 등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36개월 이전에 엄마와의 상호작용, 애착 형성이 아이의 성격이나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일과 가정의 안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순항을 위해서는 일정 시기에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많이 확대되어 자녀 양육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

## 당당한 워킹맘과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 곳

장○○/대한지적공사

직장생활 12년, 결혼생활 6년,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지 6년...

내 이름은 장 대리이자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받으면서 3개월이란 시간 동안만 함께 했을 뿐 첫째 아이에게는 이름뿐인 엄마였습니다. 직장생활과 엄마로서의 삶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벅했습니다.

고심 끝에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인천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우는 아이 모습이 떠올라 5시간 내내 나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목표와 인천을 오고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던 그 생활은 둘째를 낳기 전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갔지만 집 앞을 가도, 마트에 가도 비슷한 또래 아이의 모습에 괜히 눈물이 나고 매일 함께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힘들고 지칠 때쯤 둘째를 낳으면서 출산휴가와 함께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직접 키워보지 않은 나는 한꺼번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상황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 목욕시키는 법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첫째의 성격, 옷 취향, 좋아하는 반찬 등을 적어가며 진짜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휴직기간, 5살 유치원생이 된 큰아이는 둘째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기지 않으려고 질투와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에 없던 아기 행동을 하는 퇴행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였습니다. 엄마 사랑을 두고 둘째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떼를 쓰는 일이 잦아지고 엄마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등 너무나 힘들 때쯤, 울면서 “엄마 안아줘.”하는 말에 꼭 안아주었더니 이내 쿨쿨 잠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아이도 내게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음을 알게 되고 또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힘들더라도 꼭 곁에 두고 키워야겠다고.

### 유연근무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해결

이렇듯 복직할 엄두도 못 내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쯤, 회사에서는 ‘바로처리콜센터’ 측량 상담 업무를 담당할 유연근무제 희망자를 조사하였고 저는 주저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연근무제 중 내가 선택한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근무경력까지 인정이 되니, 아이를 딱히 믿고 맡길 곳이 없던 나에

게 유연근무제야말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4개월 동안은 유치원 등·하원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주 15시간을 근무하였고, 12개월로 접어든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처리콜센터에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직원 14명이 책상 위의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고객들의 측량접수, 민원, 전반적인 측량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밝은 목소리로 더 상냥하게 고객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화풀이를 위해서 장황하게 본인 얘기만 30~40분 하다가 끊으시는 고객도 있고, 시종일관 반말을 하시는 고객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친절히 설명해 줘서 고맙다며 고생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리곤 합니다. 동료들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서로가 서로의 직장 멘토가 되고 육아 상담자가 되어 주는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처리콜센터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로 편도 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줄까, 어떤 놀이를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등·하원시키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지금의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그림속에도 하트웃을 입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이젠 일

하는 엄마의 모습이 멋지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오늘을, 또 내일을 곁에 두고 지켜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워킹맘을 위한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증설과 직원들이 마음놓고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출근시간(7시 30분)에 문을 열고 퇴근시간(7시 30분)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당한 워킹맘으로 거듭나게 해준 유연근무제!!

우리 회사처럼 다른 기업과 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서 육아와 직장생활이 즐거운 엄마와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장○○이라는 내 이름으로 꿈을 향해 쉽없이 뛰고 있을 나를 그려보면 한없이 흐뭇해집니다.

사랑해요! LX대한지적공사! 고마워요! 유연근무제! 

7

## 내 삶의 보물을 다시 찾아준 시간제 근무

사포 ○○○ / 국립공원관리공단

아침 6시, 알람이 꿈나라에서 나오라고 한다. 이때 바로 일과를 시작하면 순조로운 하루가 되고, 게으름을 부리면 온 가족의 하루가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 알면서도 이부자리에서 나오지 못해 5분, 10분이 지나 알람이어서 일어나서 밥하고 출근준비를 하라고 재촉해야 겨우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딸 3명을 낳고 아들 욕심에 낳은 막내는 이제 33개월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아니랄까 봐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아들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내를 깨우지 않으면 옷 입기도 힘들 지경이다. 큰딸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3학년.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깨우기만 하면 알아서 준비를 한다. 6살이 되는 셋째는 누나의 자부심으로 엄마 출근을 도와준다. 내가 출근하는 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작년 11월 10일부터 나는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다문화 자연환경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취직했다는 감동에 첫 출근한 날짜를 잊을 수가 없다. 가계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일을 해야만 했지만 자녀가 많은 데다가 이주여성이라 취직이나 직장생활 같은 것은 그림의 떡이

었다.

그런 와중에 국립공원에서 다문화 해설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교육은 숙박형으로, 2주나 되는 긴 시간을 교육원에서 지내야 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어려운 결정을 밀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다. 교육을 받을 때는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와서 혼자 힘으로 서는 것 같아 흐뭇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언젠가 국립공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과 성을 다했다. 교육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나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기회에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이력서를 냈다. 다행히 채용이 되었고, 인생무대에서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되었다.

직장 생활하는 데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 건강, 체력 문제이었다. 허약하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해 전 겨울에 집 근처 스키숍에서 3개월 동안 식사 준비와 민박방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2주일에 한 번 꼴로 앓아누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였다. 당시는 농사일이 없는 겨울이라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맡아주셔서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도 힘들고 아파하니깐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라는 식으로 남편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했고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일하면서도 슬펐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새로운 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몇 번씩 몸살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살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것도 뻔히 상상되었다. 하지만 남들도 다 하는 직장 생활 나만 못하랴, 아이들에게 옷 한 벌 더 사줄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내야만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 이주여성이자 4남매 엄마로서 얻은 기회

처음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 업무가 국립공원 탐방안내와 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라 낯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데 유창하지 못한 내 한국어가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통할까 걱정이 되고 부담스러워서다. 배워야 할 일도 많았다. 탐방안내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니 사용법도 익혀야 하고, 해설 공부도 해야 하는데 나이 37살의 기억력으로는 벽찬 공부다.

여러 가지로 배워야 할 일은 많고 집에 오면 4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일을 시작해 보니 처음 걱정하고는 달리 즐겁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이다 보니 2~3일 출근하면 휴무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많아서 휴무라고 놓고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밀린 빨래를 하고 밀반찬을 만들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쉴 수도 있다. 예전보다는 바쁘지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게 된 것 같기도 했다.

원래는 탐방객이 많은 주말 위주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사무실에서 육아 때문에 편의를 봐주고 한 달에 근무 일수 내로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

도록 배려해주었다. 물론 해설 프로그램 예약 상황을 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출근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출근하는 날이 불규칙하기는 해도 학교 행사, 집안 행사 등 미리 날짜만 알고 있으면 근무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내 일을 할 수 있어 제약이 없는 것이 시간제 근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다. 동료 해설사에 비해 두 배를 쉬기 때문에 업무 전달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탐방객 수 모니터링 등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다행히 동료들이 도와준 덕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으나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수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해설 프로그램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지며 준비가 달라지기도 하고 단체예약일 경우는 팀워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줄도 잘 살피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루 이를 근무하고 이삼일 쉬게 되는 시간근로 신참 해설사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휴무가 되고 집안 일에 몰두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감을 잃기도 하고 숙련도가 느려진다. 해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라 생각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나 같은 외국인인 발음이 안돼서 꾸준히 일을 하지 않으면 듣기 민망할 정도이다. 탐방객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한국사람으로 보이는 해설사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 불쾌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격려를 보내주는 분도 있다.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 믿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다음

날이 휴무라면 없는 기운을 낼 수도 있다.

시간제 근로는 업무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지금은 이런 형태의 근무에 만족하고 있고 나에게는 맞춤형 직장인 것 같다. 아이들은 주말에 엄마가 출근하는 것을 빼면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다. 국립공원에 생태학습을 하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엄마가 일하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기가 사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휴일에 출근이 이어지면 한 번씩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컷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동생을 돌보는 것은 힘이 들고, 나도 아이들에게 이기적인 엄마가 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 출근할 때는 한 번씩 빵을 구워놓고 가기도 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엄마가 없어서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막내도 음식 전략에 잘 넘어가주기는 하지만 엄마가 국립공원 제복을 입으면 옷을 벗으라고 울고,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만 해도 어딜 가는 거냐며 불안해 할 때가 많았다.


## 온 가족이 다시 찾은 행복 시간제 근무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 이제야 막내도 엄마가 일하는 것을 받아들여 떼를 쓰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어린이집에 씩씩하게 다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아이들 옆을 늘 지켜주지는 못하게 되었어도 예전보다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전하려고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은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사내 사이버학습을 이

용할 수 있어 틈틈이 공부도 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자기계발을 장려하기에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까지 얻게 되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얻은 것 같다. 이왕이면 영어까지 공부해서 언젠가 외국인 해설사의 몫을 톡톡히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시간제 근로로 인해 소득과 인생의 보람과 미래의 꿈을 갖게 되고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 사조를 얻었다.

생각해보니 시간제 근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근무형태인 것 같다. 신기하게도 일이나 소득, 아니면 가족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니 오히려 그 사이에 숨겨져 있던, 평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스쳐 갔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가족도 기업도 더 나아가 사회까지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진출의 기회를 주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일손이 느린 외국인 해설사를 채용해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준 사무소 직원과 동료 해설사, 그리고 나를 믿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8

## 제2의 인생 시작에서 만난 시간제 근무 - 머지않은 나의 미래로의 시간여행 체험!

최○○/한국동서발전(주)

사업소에 할당된 신청인원은 2명. 과연 신청할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갖가지 방법으로 신청자를 공모하고 압박해 보아도 누구 하나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엔 내부평가 유연근무제지표 담당자인 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첨되었고, 시간제 근무는 급여가 줄어드는 뼈아픈(!) 역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듯 본 취지인 업무 효율성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가 아닌 99.9%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내 삶에서의 소소한 변화를 시작할 첫 단추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엄마의 빈자리, 언니 그리고 딸

퇴근시간이 앞당겨지니 특히 가족들을 보러 먼 길을 가야 할 때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었고, 그만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시간활용에 효율적이었다. 당진에서 김해까지 가야 할 때면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도착해 고작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지난 날들과 달리, 저녁을 들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식사도 하며 가볍게 술도 한 잔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2년 전 갑작스럽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 그리고 홀로 되신 아버지, 대학 때문에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생, 직장 때문에 충청도까지 오게 된 나. 우리 가족은 모두가 각 지방에 흩어져 지내기에 전처럼 항상 마주 앉아 오순도순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자주 볼 수 없기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공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말이 이어지는 금요일 오후면, 가족들 볼 생각에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 빨리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먼 거리를 이유로 조금은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올해, 언니이자 장녀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먼저 떠나신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위로를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 뿌듯했다.

### ‘새댁’의 새로운 취미생활

1시간 빨리 퇴근하다 보니 나는 괜스레 오후시간을 더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때부터 나는 이전에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퇴근-집-TV시청으로 매일 반복하던 하루 일과에 미미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신랑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면 대부분 외식하고 돌아와 나른하게 누워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휴식이었지만, 시간제 근무를 하고부터는 이른 퇴근으로 평소보다 저녁 먹기엔 이른 시간이다 보니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고민하며 주부 9단들의 레시피와 함께 아직 많이 서투른 솜씨지만 밑반찬과 국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혼 3개월 차가 되어서야 드디어 새댁으로 주방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여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2% 부족하지만 내가 만든 요리니 괜히 더 맛있는 것 같고, 다행히(?) 항상 잘 먹여주는 신랑 덕분에 뿌듯함도 느끼며 한층 더 요리하는 재미를 찾아가게 되었다.


요리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몇 가지 안되지만 내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숙소 단지 입구에는 직원들을 위한 텃밭이 있는데 우리 집도 5평 남짓 가지고 있다. 올해 봄에 토마토, 상추, 고추, 들깨, 쑥갓, 고구마를 심어놓았는데 가을 수확작물인 고구마를 제외하고는 올 여름 내내 아주 넘치도록 풍족한 양의 수확물이 나올 정도로 농사가 꽤 잘되었다. 평생에 처음 해보는 농사라서 그저 알아서 되겠거니 하며 신랑이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 퇴근길에 텃밭에 들러보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잡초뽑기와 가지치기 등을 하며 돌보니 꽤나 흥미가 생겼다. 또, 이틀에 한 번 꼴로 잘 익은 열매를 바로 따와서 신선한 상태 그대로 즐길 수 있었고 그 결과 냉장고 한가득 차 있는 유기농 수확물들을 보며 요리하는 데 재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TV를 볼 때에도 푸드채널을 찾아보면서 레시피를 꼼꼼히 적어두었다가 그대로 음식을 해보거나, 때로는 전에는 멈춰보지도 않았던 귀농이나 농촌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보는 등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1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단조롭던 나의 생활에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한 시간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육아 그리고 일, 양립에 대한 청사진

아직은 신랑과 나 둘뿐인 신혼이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임신과 출산 그 후로는 오래도록 이어질 육아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때 과연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시간제 근무(혹은 유연근무)라는 해결방법을 찾아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내가 피부로 느낀 이 소중한 시간들은 비록 타의에 의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사의 배려로 주어진 시간이기에 더없이 값지고 감사하다.

시간제 근무를 포함한 모든 유연근무제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아마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오랜 풍토와 관념 때문에 근무자가 눈에 보여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 달 내가 성공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

도록 해준 나와 우리 부서원들의 강한 신뢰와 유연하고 긍정적인 인식이야말로, 앞으로 유연근무제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 매 순간 바쁜 이 시대의 슈퍼맘들에게 시간제 근무가 더 많은 행복과 에너지를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I PART

## 여성 관리자

---



1

## 야전 사령관이 된 나의 29년 일기

오○○/대한지적공사

요즘 나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하던 나였지만 요즘은 가끔 중학생인 둘째 아이와 밥도 같이 먹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며 차 조심하라는 걱정까지 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남초 회사의 첫 여성 관리자, 나의 오늘

직장생활 30여 년 만에 갖게 된 호사이고 행복이다. 이런 소소한 일상에 대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건 가족과 회사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살 좀 빼야 겠다고 했더니 “학교 갔다 와서 아침에 해 놓은 밥 혼자 먹고 학원에 다니면서 생긴 외로움의 배”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직장생활을 해 본 엄마들의 비슷한 고충일 것이다.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인내했기에 남성 중심 조직 대한지적공사에서 첫 여성 관리자가 될 수 있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누리는 수혜자가 될 수 있었으리라.

## 말수 적은 초등학생, 남자 복이 터진 인생의 시작

단단한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보낸 초등 학교 시절이었다. 외곽에 살던 나는 초등학교가 시내로 이사하면서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농사일로 바빠 검게 그을린 엄마와는 달리 친구 엄마들의 백옥 같은 얼굴과 고운 차림새는 어딘가 범접하기 힘든 거리감이 느껴졌다. 게다가 허약한 몸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체육시간에 교실을 지키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말하기 보다는 묵묵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편을 좋아했다.

여고 졸업 후에도 내성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던 나는 청주에서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남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던 지적학과를 선택한 것도 아마 묵묵한 사색에서 나온 소리 없는 배짱이 아니었나 싶다. 희소가치가 있는 학과라는 선배의 말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된 남성 천국에서의 생활은 나의 잠재력을 찾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학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부모님께도 못 받았던 관심을 학과에서 넘치게 받으면서 성격도 점차 바뀌어갔다.

## 여자가 무슨 측량을 한다고? 내 인생의 첫 번째 고비

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4월 대한지적공사와 첫 인연을 맺었다. 지금은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입사하지만 당시로서는 대학을 졸업한 여자 기술자가 입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 나는 전산실 업무를 배웠고, 1996년 4월부터 일선 현장업무를 시작했다. 당

시에는 억세고 거친 현장의 모습이 그토록 낯설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본사에서 편하게 있다가 일선에 와서 피해만 준다.”, “여자가 무슨 측량을 한다고…”라는 남자 직원들의 뒷담화를 들으며 주눅이 들어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고비를 겪기도 했다. 입사해서 평생을 측량 업무에만 종사하다 퇴직하는 남자 직원이 전 직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당시로서는 본사에서 온 여직원이 현장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해되지 않던 시절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당당하던 나는 어느새 울보가 되어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선배님과 후배 들의 얼굴이 떠올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용기를 가졌다.

### 사표를 출사표로 바꾼, 인내와 용기

직원들에게 측량기술을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평생 흘릴 눈물은 이때 다 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시로 퇴사에 대한 갈등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의 시간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죽을 힘을 다했다. 그러자 어느샌가 냉소적이던 직원들도 나에게 눈길을 주었고 서서히 그들의 페르소나에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언제 퇴사하는지 내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런 시기를 참아낸 내가 새삼 대견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현장업무를 하는 여직원으로 인식되어 이때부터 나의 모든 행보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 시작했다.

## 복대로 뽕뽕 싸매고 임신도 숨겨야 했던 눈물겨운 추억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나는 직원들이 알까 봐 거의 막달까지 비밀로 해야 했다. 지금은 임신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리지만 당시는 여직원이 임신하면 죄인처럼 숨기던 시절이었다. 복대로 뽕뽕 싸매고 임신 사실을 숨겨가며 어렵게 둘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보육은 더 문제였다. 출산 후 갓난아이를 이웃에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워 또 다시 청주에 계시는 친정엄마께 부탁을 했고 돌이 지나고서야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둘째 아이는 보육시설과 개인 집에 위탁을 하며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아이가 많이 아플 때가 제일 난감했다.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보니 남편이 조퇴하고 아이를 돌본 적이 수없이 많다. 통통 부은 아이들의 얼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원숭이 엉덩이처럼 발갛게 부어오른 모습 등 가슴이 무너져 내릴 만큼 막막하고 미안했던 기억... 그 힘들었던 시절도 이젠 추억이 되었다.

## 최초의 여성측량팀장이 된 나의 도전~!

우리 아이들을 돌보느라 엄마는 10년 세월을 희생하고 어느덧 노인이 되어 버렸다. 어머니의 관절염과 주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주변 의 희생과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생활했고 이는 서서히 직장 생활에서 발하기 시작한 빛으로 확인됐다. 2003년, 나는 지적공사 최초의 여성 팀장이 되었다. 측량팀은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남자 직원 두 명을 지휘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현장 출장지에서 가끔

‘아줌마’라고 부르며 나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남성 고객도 있었지만, 여성 측량팀장은 처음 봤다고 정말 자랑스럽다며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다. 남자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시지 못했던 술도 마시고, 팀원과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 먹지 못했던 보신탕도 먹고, 산과 들 구분 없이 측량이 필요한 모든 곳을 다녀야 했던 나는 어느새 중성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남성적이고 힘이 드는 업무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만큼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노력했으니 조금 사라진 여성성은 결코 안타깝지 않다.

### 여성의 부드러움이 남성의 강함을 능가한다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냈다. 정보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장근무 직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측량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우수상도 받았다. 최초의 여성 팀장이란 수식어는 항상 내 이름처럼 따라 다녔다.

2008년, 14년 만에 공사 최초 여성 민원담당자로 다시 본사 발령을 받았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년 현장으로 돌아가 여성 최초 현장의 차장이 되었다.

현장업무나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성의 장점은 참 많다고 생각한다. 남자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욕을 하던 민원인도 여성에게는 조심스러워하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질 때가 많다. 그렇게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내게 국민신문고 대상을 선물했으며 2013년 2월 대한지적

공사 창사 36년 만에 최초 여성 지사장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 밖에선 국민대표, 안에서는 살뜰한 엄마~! 일과 가정의 양립

나는 지금 오래전 현장 발령으로 눈물을 삼켰던 그곳에서 공사 최초 여성 지사장이 되었고, 아이들의 등하교를 함께하며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키는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고 있다.


남초, 계다가 현장 중심의 조직에서 최초 여성 지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주었다. 축하도 많이 받고 인터뷰도 많이 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성공적 여성 관리자의 사례로 선택되어 국민대표 30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던 일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침식사로 밥과 국 준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병가를 내 본 적이 없다. 사람 몸은 자기의 생활환경에 적응한다는 의지로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요즘은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이 무용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다.

후배들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처럼 꾸준히 내 길을 걷고자 한다. 본사에서 현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했지만, 그때 현장으로 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필연이라 믿으며 29년 전의 오○○의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느 선배님의 말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라.”

내가 속한 조직이 유리천장이라고 낙담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멋진 여성 관리자가 되길 바란다. 

2

## 롤 모델이 되고 싶다

박○○/근로복지공단

지난 9월 12일, 우리 공단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인증심사가 늦었다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나는 사업 관련 부서장으로서는 “우리 공단은 충분히 가족친화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인 인증의 필요성을 미처 느끼지 못했다.”고 떳떳하게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한 회사에 두 번 입사한,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 때문인지 피수검자로서의 감회는 남달랐다.

### 희망하던 공기업에 입사해서 정말 잘 나가던 시절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활발하지 않았던 1989년 말,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근로복지공단(당시 근로복지공사)에 입사하였다. 공기업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공기업 특성상 입사나 이후 생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이

주된 퇴직사유였기에, 졸업 후 꼭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학창시절부터 강하였던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 1990년 1월 입사 당시 동기 약 30명 중 여성은 단 1명뿐이었다. 먼저 입사한 동성 선배들이 드물었고 초급·중급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 부장 등은 전무했으나, 입사 7년차에 제1회 3급 진급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초급관리자인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 조직은 나를 버렸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입사 이유였던,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큰 배신을 경험하였다. 1997년 IMF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위기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우리 공단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구조조정 주 대상이 '사내 부부, 징계 경력자, 근태 불량자' 등이었다. 특별히 사내 부부에게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감점을 부여하고 한쪽이 스스로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을 구제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조정에서 사내 맞벌이를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한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내 부부였던 나는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퇴직 또는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고려하였지만 아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단을 내리

지 못하였다. 대상자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는 자진 퇴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로금 없이 해고하였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온 조직에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진 퇴직을 거부했고, 차장 2년 차이던 1998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되었다. 해고 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구조조정’ 또는 ‘해고’라는 단어만 접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 한쪽이 칼로 후비는 것처럼 아렸다. 특별히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없이 억울한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 원망과 아픔, 좌절이 가득하였다. 그 원망은 뚜렷한 대상을 찾지 못하다가 자신은 머물고 싶지만 떠난 조직과 그 조직에 남아 있는 동료에게로 향하였고 더 나아가 배우자, 회사 동료와 결혼한 스스로의 선택에까지 이르렀다. 해고 후 지방 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을 검토하던 중 공단이 재고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단하였으나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 대한민국 아줌마는 쉬지 않고 종견간부가 되었다

공단의 리콜정책에 따라 나는 해고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02년 8월, 이미 나에게는 애증(愛憎)의 대상이 되어버린 공단에 해고 당시의 직급(3급)으로 재입사하였다. 재입사 이후 부천지사, 본사, 서울강남지사에 근무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전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였다. 재입사에 따른 경력상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노력과

주위 동료, 선배들의 도움으로 2009년 1월에는 2급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2년 여 동안 공단을 떠나 있던 경험이 처음에는 아픔으로만 기억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큰 교훈을 주었다. 전문직이 아닌 우리 공단 업무의 특성상 조직에서의 경력이나 능력은 조직 안에서만 인정될 뿐 조직을 떠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시기이기도 했고, 미래만을 꿈꾸거나 과거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중견 간부는 되었지만 스스로의 부족함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장기간 한 조직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퇴보하지 않고 조직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다. 업무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의 시차 출퇴근, 쿼터 휴가(2시간 휴가)는 수업 참석을 위한 시간 활용에 아주 유용했고, 적은 돈이지만 학자금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구성원의 자기계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동료, 가족들의 배려로 5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금년 8월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 **다른 것에 관심 없다. 롤 모델이 되고 싶을 뿐!**

우리 공단은 주력사업인 산재, 고용보험사업과 의료사업의 특성상 전체 인력 6천여 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훨씬 넘는다. IMF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군 가산점 폐지 등으로 공기업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하위직급이며 여성 간부는 남성에게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여성 관리자는 업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다. 역할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더 큰 파급력을 지니므로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배로서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특정 보직이나 직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편견이 존재하고, 이런 사회적 편견들은 공단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보다 어렵고 중요한 일에는 남자 직원이 배치되고, 상대적으로 쉽고 단순한 일에는 여성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하거나 스스로 과다한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단은 피해보자고 눈감아서는 안 된다. 당장 쉬운 일, 편만한 일에 안주하거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거나 조금 더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 하고, 대우는 동등하게 받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에서 배제시키는 것, 얼핏 배려처럼 보이는 것은 곧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차별이며 불이익이 예정된 것임을 인식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것을 탓하거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설사 여건상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우리 공단을 비롯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생활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는 법령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입법과 법령 개정으로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이후에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끊임 없는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휴가, 휴직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여성의 가정생활을 지원하지만 업무 면에서 볼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꺼려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사, 육아 등이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당연히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함께 분담할 때 여성 고용이 특별히 불편한 일이 되지 않는다.

끝으로 여성의 성공적인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유 없는 우대나 배려를 받는 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권리만을 찾겠다는 생각은 부당하다.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 “오 마이 갓”

정○○/한국동서발전(주)

지난 겨울, 43살의 적지않은 나이로 첫째와 12살 터울인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한 마디로 뒷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오 마이 갓, 이를 어찌.” 당시 나는 주말부부로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 본사 감사실에서 검사역으로 근무 중이었고, 남편과 큰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동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배불러 회사를 어떻게 다녀야 하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 6학년 아들은 뭐라고 할까.’ 별의별 생각들도 병원 진료실에서 쿵다쿵다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한 달 넘게 사무실에 임신 사실을 말도 못하고 회식 때마다 몸이 안 좋다며 술을 사양하다 드디어 사실을 알릴 기회가 찾아왔다. 1월 2일 사무실 신년 인사 시 돌아가며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씩 하는 순서에서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냉큼 “올해 저희 가족이 한 사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동해사업소로 전근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재가 뭐 소릴 하는 거야?’ 라는,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부연설명으로 둘째를 임신했다고 다시 말했을 때 다들 황당해 하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당당히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 회사의 핫이슈가 된 둘째 아이 임신

늙은 나의 둘째 임신은 삼시간에 핫이슈가 되어 회사에 퍼져 나갔고 여기저기에서 직원들의 축하전화가 이어졌다. 특히 여직원들의 “진짜예요 차장님??”이라는 문의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2005년도 우리 회사의 여성 관리자로 승진한 첫 번째 케이스로 후배 여직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 회사는 남성 위주의 기술회사로 1994년 내가 입사할 당시에도 여성의 비율이 극히 적었다. 한전에 입사하여 첫 근무지인 영월 화력발전소에 부임했을 때 나는 유일한 공채 여직원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회사의 여성 비율이 한전에서 분사 시인 2001년 4.9%에서 9.2%로 증가하였고 여성 간부도 19명을 배출하였다.

임신 6개월까지 본사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사업소 감사기간에는 2주에서 3주간의 지방출장을 다녔다. 지난 3월 벚꽃이 만발한 울산화력을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서울로 가는 KTX 출발시간을 2분 남겨놓고 역에 도착해 울산역사를 부른 배를 부여잡고 뛰었던 생각이 난다. 다행히 먼저 기차에 도착한 동료가 배부른 나를 위해 역무원에게 “임신부가 뛰어와요!”라며


부탁해 간신히 기차에 탈 수 있었고, 기차 안에서 한참 동안을 헉헉대던 그때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자락이 되었다.

지금 나는 회사의 배려로 가족들이 있는 동해 화력발전소로 지난 5월 초에 전근을 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노산 탓인지 5월 말, 30주 4일 만에 양막이 터져 서울 모 대학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여 20여 일을 온갖 항생제와 약물로 출산을 지연시키다 지난 6월 19일, 33주 2일 만에 팔삭둥이 딸을 얻었고, 유난히 덥던 올여름 폭염 속에서 3개월의 몸조리를 무사히 마치고 추석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였다.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을 고민하였으나, 맞벌이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매월 200시간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회사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가사와 육아, 회사 일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남편과 큰아들의 가사 도움, 여직원에게 대한 회사의 여러 정책적 배려, 정부의 육아지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며 이 시기를 잘 넘겨 경력의 단절 없이 동서발전의 첫 여성 관리자로 퇴사 시까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

끝으로 양수 없이도 20여 일을 잘 버텨주고, 1.8kg의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20일을 잘 자라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나의 귀한 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4

**아이들, 생각보다 강해요!! 육아로 사직? NO!!**

권○○/한국공항공사

세칭 홍일점 신입사원으로 1991년에 입사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팀장이다. 이곳에서 아마 정년퇴직을 할 것 같고,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내가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될 것이다.

갓 입사해서 회사로부터 비서실 근무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페미니스트도 여권(女權) 신장론자도 아니었지만 ‘사표’를 생각했다. 곰살맞지 못한 성격이기도 하였지만, 비서실보다는 좀 더 젊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싶어서 거부의 의사 표시로 철없이 결근을 했다.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걱정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런 방식의 의사 표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당하게 이러저러해서 싫다고 하면 될 텐데, 무단결근을 해버려서 당시 직원들은 나를 다루기 힘든 여직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하여튼 여자라는 이유로 마음고생 아닌 고생을 했다. 그래도 남자 직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한다. 휴일근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했다. 그래도 그때는 ‘싱글’일 때라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결혼 후 많은 제약이 생겼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공사도 예외없이 사내커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나는 남편과 입사 동기인지라, 여직원들이 하나 둘 사직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사내에서 가장 힘들다는 재산관리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여직원이 재산관리부에 배치된 적이 없었는데 내가 1호로 발령이 났다.

###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다

지방에 있는 동기들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그 부서로 배치한 거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난 부딪쳐 보기로 했다. 우리 회사는 공기업이고 사내 어느 규정을 봐도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재산관리부가 뭐 별 곳이나, 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노력했다. 재산관리부에 배치된 초기에 회의자료 만드는 일로 늦어질 때면, 당시 팀장님께서 여자라서 이리 늦는 것이냐고 타박할 때도 있었다. 무척이나 자존심 상했지만 난 묵묵히 내가 맡은 일을 했다. 회의자료도 더 꼼꼼히 챙기고, 재산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항내외부 모든 건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사 후 도면작업을 했다.

사실 나보다 후배인 남자 직원들은 좀 더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여객청사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임대계약 업무를 한 반면, 내게는 재산실태조사, 경작지 임대 등의 업무가 배정되어 불만을 가지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

각하면 ‘이제 갓 배치되어 그런 일부터 하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현장을 일일이 다닌 경험이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팀장님께서도 처음에는 핀잔도 주고 하셨지만,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임신한 여직원이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업무도 꼼꼼히 잘 챙긴다.’며, 내가 하는 일이면 믿을 만하다시며 인사팀 등에 가서 나를 칭찬하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셨다. 재산관리부에서 내가 다른 부서로 떠난 이후 여직원들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나로 인해 여직원에게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해소된 것 같아 뿌듯했다.

한참 세월이 흘러 입사한 지 10년차가 되었을 때 서울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발령이 났다. 공항은 그 특성상 지역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인사 운영상 지방근무는 불가피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게 닥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아마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김해공항으로 가야 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21개월이었다. 전셋집을 얻고 인근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겼다. 큰애는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다. 친구들과 보기 창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동생이 있으니 엄마를 대신해서 저녁엔 항상 큰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와 있었다.

당시 물품계약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김해공항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300여 개 이상의 물품(공항을 운영하는 데 다양한 품목의 장비들이 필요

하기 때문)에 대한 가격조사를 물품당 2개 업체씩 하고, 실거래가를 조사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조사를 거친 후 구매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서 기존 납품업체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워낙 투명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나중에는 업체 담당자들 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 ‘워크홀릭’ 엄마의 고분군투

이러한 ‘워크홀릭’ 엄마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는 항상 동생을 챙겨야 했다. 지금도 우리 큰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큰아이가 아니었다면 직장생활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어린이집이 저녁 7시 정도면 끝나는 데, 나는 거의 매일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큰아이는 동생을 여름에는 걸어서, 겨울엔 포대기에 업고 데려왔다. 엄마로서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 때문인지 우리 아이들은 자립심이 무척 강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탓에 혼자서 잘 해결한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엄마가 매일 늦으니까, 한번은 큰아이가 참다못해 폭발한 적이 있다. 업무가 끝난 뒤 마침 본사에서 감사를 나온 여직원과 저녁 회식을 하고 늦게 집에 갔더니 큰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다. “엄마 나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라며.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애들한테 무심했구나! 반성하고 그 사건이 있는 후 좀 더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근무시간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일주일에 이들은 일찍 퇴근해서(지금은 회사에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주일에 이들은 정시퇴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놀이터에서 놀았다. 주말엔 장기 자랑도 하고 스타킹 뒤집어쓰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아이들은 엄마랑 부산에서 보낸 3년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한다.

지금 큰아이는 외고 3학년생이다. 대입 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도 스스로 쓰고 공부도 척척 알아서 하고, 동생 숙제도 잘 봐준다.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3학년때부터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뭐든 혼자서 잘한다. 오히려 간섭하면 싫어한다. 직장생활로 인해 온전히 애들을 돌보지 못한 것 같은데, 스스로 하는 습관이 길러져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요즘은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아들 둘과 생활하고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큰아들 학교 보내고, 둘째 아들 아침을 준비해놓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선다. 작년에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일요일 오후엔 항상 회사에 나와 다음 주 업무계획을 체크하고 집에 가서 애들과 저녁식사를 한다. 그래도 토요일은 꼭 집에서 아이들과 보낸다. 일요일 오후에 큰아들은 독서실에, 작은아들은 축구교실에 간다. 애들이 집에 없는 그 시간에 난 회사업무를 챙긴다.

## 이해, 소통 그리고 배려

요즘은 회사업무가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이젠 내 생활의 일부로 체화되어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예전엔 애들을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오면, 따라 나와서 울던 아이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열이 펄펄 끓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회사에서 화장실 번기물 내리며 소리 죽여 울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애들 걱정애 회사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회사를 관둬야지 마음을 먹기도 하였지만, 그만둔다고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 그만두면 100% 후회한다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선배들의 충고도 있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해법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나도 그 많은 순간순간들을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 지금까지 걸어 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직장애 가정의 일 모두를 함께 잘하기란 정말로 어렵다. 생각건대, 직장이든 가정이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직장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고,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녀를 떠나 서로 이해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부서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이 있다. 나는 가급적이면 그 직원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애쓴다. 가족들이 제주에 있어서 제주 출장 건이 생기면 그 직원이 가도록 한다. 물론 업무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이해가 중요하다. 엄마가 직장생활하는

것을 우리 아들들은 자랑스러워한다. 엄마가 왜 늦는지 집에 가서 항상 난 아들들에게 얘기한다. 요즘도 집에 가서 내가 행사 진행 역할을 맡을 일이 있으면 아들들 앞에서 시연을 하기도 한다. 아들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은 내려 놓는다. 조금 지저분하면 어쩐가! 모두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다시 생각해본다. 아침에 회사 늦는다고 밥 빨리 먹으라고 독촉한 일, 아침에 바빠서 죽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면 화내고, 못 가게 하고... 나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 두 아들은 지금의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 스스로 커가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들에게 나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맞벌이 여성들이여!!!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는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하시길...

그리고 가정의 일도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키우세요!!

내가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 !!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5

## 여성을 위한 회사는 없다

### - 함께 행복한 회사 만들기

김○○ / 한국동서발전(주)

연료승압설비의 진동 추이를 확인하던 중 핸드폰이 울린다.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다는 동아일보 기자의 전화였다. 여성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여성 리더십이 주목을 받으며 들어온 인터뷰 제안이다. 가볍게 20분간 전화로 인터뷰를 한 뒤 문득 신입사원 시절 모 전력 일간지와 여성 발전운전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 중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생각났다. “환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처럼 그의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해 본다.” 인터뷰 당시 매우 미심쩍어했던 기자의 태도 때문인지 나에게 그 멘트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란 기자의 속마음으로 읽혔다. 10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레 지난 날들을 돌아켜보게 된다.

### 금녀의 벽을 깨다

2003년 한국동서발전 공채 2기로 입사할 당시만 해도 발전소는 공기업 특유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분사 이전인 한전 시절부터 금녀의 구역으로 여성 운전원이 거의 없었다. 여자 화장실마저 없던 발전소

에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갓 배치된 여직원이 교대근무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담당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운전부서에 배치되어 교대근무를 하며 발전소 계통과 운전방법을 익힌 후 설비부서로 이동하여 일근을 하며 전문적으로 설비를 관리하는데, 단지 근무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동기들이 당연히 거치는 과정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우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발전부장님은 매우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신입직원의 당찬 포부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다. 발전소 한 층의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과 샤워실로 개조하여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동서발전 최초 여성 발전운전원으로서 발전소 교대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 발전소에 올려 퍼진 여성 운전원의 목소리

그렇게 시작한 동해화력에서의 발전소 운전원 근무는 처음부터 생각만큼 만만하지는 않았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과 연구소에서 로봇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익혀야 하는 유동층 발전소 계통이나 용어들, 공구나 장비 이름들은 아주 생소하게 다가왔고 발전소를 기동·정지할 때 조작해야 하는 몇몇 밸브들은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 첫 발전운전원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여직원도 현장 근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발전소 계통을 익히고

부족한 것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여직원이 아닌 동료나 후배로 대해 주었고 작업자들도 현장 운전원실에서 커피를 같이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작업 부탁하기도 수월해졌다.

비번 때에는 영어나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재직자 과정을 이수하여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해서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풀코스를 완주하기도 하며 여자라서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마치고 2005년 처음으로 중앙제어실에 입성하게 되었다. 발전설비 운전상태의 집중적인 감시와 원격제어가 이루어지는 중앙제어실은 발전소의 꽃으로 불리는 곳으로 그동안 여직원에게 근무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남성 운전원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던 발전소에 “잠시 후 ○호기 ○번 ○○○ 기동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기동”하며 폐이지폰 방송을 통해 여성 운전원의 목소리를 울려퍼지게 했던 첫 주간 기기 교체운전의 떨리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다.

## 이유없는 야근은 없다

2007년 일근으로 이동을 고려할 즈음 본사 연구기획팀 차장님으로부터 같이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 아쉬워 일근 경험 없이 본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대근무만 하며 기안은 물론 회계 전표마저 만들어 본 일이 없던 나에게 본사 업무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동료 직원에게 기초부터 업무를 배우고 퇴근 후 OA교육을 받는 등 본사 업무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당시 연구기획팀은 크게 연구개발과 전원개발 업무를 담당했었다. 팀장님은 “젊은 사람이니 프로그램은 잘 사용하겠다.”며 전원개발 시뮬레이터 운용을 지시하셨는데, 전원개발은 그해 연구기획팀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편입된 업무로 팀 내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 전직 담당자들도 다른 팀 차장님들로 실제로 차장 업무를 신참에게 지시하셨던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결과를 내라는 지시를 받고 바쁜 전직 담당자를 찾아가 몇 일 동안 퇴근시간 이후까지 프로그램 사용법을 전수받고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퇴근 후 숙소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며 겨우 결과를 냈지만, 조건을 바꿀 때마다 5~6시간씩 시뮬레이션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새벽에 잠깐씩 일어나 조건을 바꾸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밤낮 없는 업무의 연속이었다. 이는 신울산 복합화력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고 신울산 복합화력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승격과 함께 울산 4복합화력으로 불리는 신울산 복합화력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교대근무를 하며 시운전 업무를 하는데 다시 회상해 보니 감회가 새롭다.

## 영어올령증 극복기

조직개편과 함께 연구기획팀과 중소기업지원팀이 통합되면서 2010년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전력산업과 동서발전의 발전운영 기술에 대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업무가 주어졌다. 교대근무 때부터 틈틈이 하던 영어공부 때문에 영어점수는 좋았지만 대부분 그러하듯 외국인을 만나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당시 출퇴근 시간을 아껴보겠다고 스쿠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해 3주간 입원을 한 후라 준비기간마저 빠듯했다. 밤잠을 쫓아가며 영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지나가던 다른 팀 직원들도 다 들리도록 팀장님과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며 단기간에 준비하여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해외사업팀에서 러브콜이 왔고 기술직으로서 접하기 힘든 재무, 회계, 계약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업무역량을 폭넓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유리천장 두드리기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루하루를 달려왔지만 승격 앞에서는 유리천장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논술점수도 좋았지만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로 인해 매년 남자 직원에게 순위에서 밀렸다. 평소에 능력을 인정해 주던 상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이 많은 남자 후배의 손을 들어줘서 낙방했을 때는 상사에 대한 서운함과 열패감으로 조직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 하지만 조직개편과 함께 남녀 구분 없이 능력으로 평가해주는 상사를 만나게 됐고 또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드디어 지난해 초급 간부 선발시

힘에 합격하게 되었다.

승격 후 현장근무를 희망하여 올해 초 울산 4복합화력 시운전반에 발령 받았다. 국가적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긴급히 착공한 울산 4복합 화력은 주말과 휴일도 잇은 채 불철주야로 근무한 시운전요원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용량의 가스터빈을 올해 7월에 조기 준공하며 올여름 전력난 해소에 일조하였다.


## 함께 행복한 회사 만들기

이제 여성 관리자라는 시험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로서 인터뷰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직군의 여성 관리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언제나처럼 처음은 어렵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끼고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 하나라도 더욱 돋보일 수 있다. 내가 항상 배려받고 있는 만큼 나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배려하고 세심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세릴 샌드버그는 “모든 분야에 여성 리더가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단지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회사에서도 여성 이사회가 발족되는 등 여성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여성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발전운전원이 드물어서 인터뷰까지 했지만 이제는 흔해진 것처럼 여성 관리자가 흔해져서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뛰어난 성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 6

## 일·가정의 양립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

김○○/한국국제협력단

오늘도 세 돌이 채 안된 둘째 아들의 인사를 받고 큰아이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5년을 기다려 들어가게 된 국공립어린이집에 큰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한다.

아직 3년째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에 대기 중인 둘째 녀석은 남편이 민간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출근한다. 그리고 일주일 중 3일은 시차출근제를 사용하고 있는 내가 아이들 하원을 책임지고, 하루는 친정 부모님이, 하루는 남편이 아이들을 하원시키면 그 이들은 내가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한다.

아이들은 다행히, 엄마와 아빠에게는 회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주고 적응하고 있다(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나름의 ‘틀’을 잡고 균형을 찾는 데 참으로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고, 그 사이 사회적으로 일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했다.

## 10년차 사회인, 나는 누구일까?

어느새 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10년차가 되었다. 10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나는 팀장 업무를 수행하며 6살과 3살난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맘’이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고 며느리이며 친구이자 선배이고 후배이다. 많은 역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10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엄마’가 되어 진정한 ‘가정’을 일구며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 변화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가꾸는 일이었다.

## 육아휴직제도 만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제도를 1년간 이용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제도 도입 초기였던 상황이라 여자 선배님들조차 ‘우리 때는 두세 달 쉬고 나왔었는데...’라며 부러움 반 섞인 농담을 건네시는 게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없었다면 아이와 온전하게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쌓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이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의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가 만 세 살이 되기 전까지 직접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를 직접 낳아 키우고 나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다른 보조 양육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북유럽의 선진국들에서 3년간의 양육기간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 첫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던 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아이를 차에 태워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은 채로 운전을 했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아이를 처음으로 떼어 놓고 나오는 출근길이 제정신일 수가 있으랴. 한두 달 전부터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헤쳐 나가야지 다짐했건만, 출근하는 차 안에서부터 눈물바람이었다.

복직 후에 일주일 정도의 첫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다. 아이보다 내가 분리불안 증세가 더 심한 듯했다. 출장지는 동티모르였는데, 동티모르의 아이들을 보면 다 내 아이 같아 보이고 감정이 이입되었다. 아이가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까지 모유 수유를 끊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 출장 기간 중 유선염이 생겨 고생하기도 했다.

### 아이 둘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미션? 미션 파서블!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로는 출산휴가가 한참 남았는데도 줄곧 어떻게 복직에 대비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첫째 아이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키웠지만 둘째까지 부탁드리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직 대기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엄마의 출퇴근 시간과 기관의 등하

원 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꿀 대안이 없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제도’만 있을 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조선족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데에는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되었고, 아이가 신생아일 때 경험삼아 시도해 봤으나 우리 가족과는 맞는 육아법이 아니었다.

때마침 복직 한두 달 전쯤 회사 인사실에서 반가운 메일을 받았다. 시차 출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남편과는 상의 끝에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는 가능한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기관 선생님들과의 협력으로 키워보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과 소득적인 측면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무상보육의 확대 실시로 인해 직장맘이 아닌 엄마들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확산되어, 복직일자는 다가오는데 둘째 아이를 보낼 곳이 없었다.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집 주변의 어린이집 수십 곳을 찾아 대기 등록해 두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다행스럽게 복직 3주 전쯤 둘째도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적응기간을 거쳐 종일반에 다니게 되었다.

### **육아도 업무도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아이들 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것처럼, 내 일에서도 절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아이가 없던 시절에야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


이를 기관에서 하원시켜야 한다는, 바꿀 수 없는 제약조건이 생겼기에 절대시간 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시간의 투입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나를 대체해줄 양육자를 섭외해야 했다. 내가 부탁드리기 조금 더 수월하다는 이유로 친정엄마가 무슨 죄인지 많이도 섭외되었다. 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의 몰입도를 높여야 했다. 시차출근제로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는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긴급한 사안은 퇴근 후 집에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결하기도 했다. 회사 전화는 핸드폰으로 연결해 놓는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업무시간 이외에 걸려오는 업무전화를 이동 중이나 집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 업무 성격상 시차가 있는 해외사무소와의 연락이 잦은 탓에 스마트폰으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추진이 가능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온갖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직장맘은 본인이 제일 힘들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마련인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삶도 인간관계도 단순화해야 하고, 내 상황을 이해 못하는 직장 상사나 업무 관계자,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 같다.

## 일·가정의 양립문화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은 동생 같은 후배들, 형제 같은 동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온다. 회사 내에서 멘토링을 통해 후배 직원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TF에도 참여 중이다. 부서 내 직원들의 육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도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내가 한 것과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서로 어려울 때에 업무적으로 힘을 나눌 수 있는, 신뢰에 바탕을 둔 팀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곧 둘째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에게도 출산휴가 5일과 개인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업무적인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내가 고생하면서 일해 왔다고 내 후배들도 같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가정의 양립은 마음가짐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형제이자 부모라는 점을 공감하고 배려하여 소통하며 일한다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문화와 일자리나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봉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가 만드는 일-가정의 양립문화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이○○/수자원공사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류학자인 엘리자베스 M. 토마스가 쓴 소설로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삶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20대 후반의 나이에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소설은 구석기시대를 살아간 ‘야난’이라는 한 소녀를 통해 세상의 모든 딸이자 동시에 모든 어머니이기도 한 여자의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현재에 살고 있는 저에게 ‘여자라는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여자라는 한계에 대해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였으며, ‘여자라서 불리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은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반 사기업이 1차 서류심사에서 대부분의 여성 지원자들을 떨어뜨렸던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공채시험을 통한 채용정책을 도입하고 있었던 덕분에, 1년 여의 입사준비를 통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공채직원으로 1991년에 한

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입사 동기생들은 모두 약 100여 명으로 그중 단 세 명만이 저와 같은 여성 입사자였습니다. 입사 초년병이었던 저는 공채직원으로 채용된 만큼 다른 동기생들과 같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성취욕으로 업무에 도전했으나,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직 여자 후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힘들지 않은 일, 현장에서보다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배려가 핵심 업무를 배워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배려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여자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한 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남녀 차이’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

그러던 중에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도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전국에 근무지가 있고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5년에 한 번 씩은 근무지를 순환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순환보직제도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는 연고지 근무에 대한 배려제도가 있었고, 이 제도로 인하여 자녀가 어렸던 시기에는 남편의 회사가 있는 수도권에서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히 저는 직장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회사의 배려로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배려보다는 슈퍼맘을 원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여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이 더 많은 분위기여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며,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의 직장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여자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무와 여자로서 하기에 적합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었으나, 어쩔 수 없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자라서 겪는 차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작전을 세웠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에서도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이 업무를 발전시켜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업무 성과를 발전시키

고자 노력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원에도 진학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업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업무 병행 학위과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석사과정에 이어 박사과정까지도 무사히 수료하면서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제가 갖추고 싶었던 경쟁력인 전문능력도 겸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육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위과정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육아 부분에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느껴지는 남성은 야근과 회식에도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저의 경우에는 양육과 진학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야근과 회식이 항상 큰 부담으로 다가와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야근을 하지 못할 때는 업무를 집에 싸가지고 와서 항상 새벽까지 업무들을 처리하였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가기 전날이면 밀린 숙제들 때문에 밤을 새워 숙제를 하면서 동이 틀 무렵이 되면 피곤해서 남몰래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나니, 그 사이 사회는 더욱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매우 활발해졌으며,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여성차별을 대표하는 단어인 소위 ‘유리천장’도 많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사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여 여직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등 여직원들이 보다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십’ 과정이라는 교육을 개설하고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여성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의 회사생활에서 여자라는 한계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회사생활과 가정을 지키며 자신을 개발해온 저 역시 이러한 사회와 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드디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당히 여성 관리자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지내온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나 자신도 매우 많이 성장했음을 느끼며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자랑스럽고 흐뭇합니다. 더불어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 직원들이 고생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 힘들고 어렵게 회사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비록 힘은 들었지만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온 덕분에 집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어머니와 아내


로서, 직장에서는 배려와 포용, 양보심, 섬세함을 갖춘 관리자로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는 나름의 win-win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여성차별’이라는 단어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성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하여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여성정책도 “여성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니 그런 세상이 더욱 빨리 올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이제는 구석기시대를 살았던 ‘아난’의 고민이 더 이상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감히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기를...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를...

“남자가 고기를 지배하고 오두막을 지배해서 여자보다 월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자가 위대하다면 여자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니까!”

- 『세상의 모든 딸들』 중 - 

## 깎 수 없는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최○○/한국철도시설공단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의 철도망 건설과 철도시설의 관리를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가 필요한바, 우리 공단에서는 전국을 철길로 연결하여 90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하고 있다.

### 공단 창립 후 첫 공채 여직원으로 입사

1996년 7월 공단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참으로 우연히도 일간신문 하단의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동참할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보게 되면서이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 덜컹거리는 무궁화호를 타고 방학이면 외가댁을 오가던 철도에 대한 아련한 향수도 한몫 했겠지만 그 보다는 서울~부산 간 90분 주파라는 문구 아래 KTX의 날렵한 이미지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

채 5기로 입사하게 되었다. 공단 창립 후 공채 여직원 1호였던 내가 지원했던 재무부서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 여직원을 충원하기 꺼려, 나는 희망과 달리 사업관리부서로 배치되었다.

공정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업관리부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 구간 문화재 출토, 국내 최초였던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이슈 등으로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현안이 많았던지라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야근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던 신입사원 시절, 그까짓 야근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그 당시엔 국내에 생소했던 Project managemnet에 대해 자문회사였던 美 백텍사의 OJT를 통해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나가는 재미가 무척 컸던 것 같다.

그 후 신입 여직원이 제법 열심히 일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내가 일하고 싶었던 재무부서에서 같이 일해 보자는 제의가 왔고 그 후로 재무, 회계, 국제금융, 예산관련 업무를 차근차근 거쳐 CDP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으로 근무하는 어려움

하지만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워낙 조직이 남성 위주의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전문 공공기관이다 보니 대리나 과장 승진 시 업무 외적인 사유로 남자 직원들에게 밀리기도 하여 쓴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근무평정을 받은 상관이 보시기에 상대 남자 직원이 보다 나은 부분이 있었기에 승진추천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엔 결과를 수궁하기 어려워 한동안 속상해 했던 기억이 난다.

공단 초기 여직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여직원 휴게실이 마땅히 없어 임신 중 힘들 땐 화장실 벽에 기대어 몇 분간 눈을 붙이기도 하였고 출산 후 현업에 복직 후에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시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계속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모유를 짜 저녁 퇴근 후 가져다가 다음 날 먹이기도 했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최근 신입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2012~13년 공채에서는 사무직의 80~90%가 여직원으로 채워졌으며, 토목이나 전기 등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기술 분야에서도 여성 공채 직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과거 여직원에 대해 기피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던 관리자들이 이제는 “뜰뜰한 여직원 하나가 열 남자 직원 부럽지 않다”며 서로 부서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보며 실로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실감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여직원 수에 걸맞게 우리 공단에서는 임신부의 휴식과 산후 복직한 직원의 모유 수유 등이 가능토록 완벽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여직원 휴게실과 훌륭한 커리큘럼 및 육아시설을 갖춘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해 육아로 인해 정시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은 1~2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효율 및 집중도가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도나 육아휴직의 경우 여직원뿐만 아니라 맞벌이 남자직원들도 활용함으로써 업무성과 향상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여성의 복지가 가장 발전한 미국의 경우 학사학위 수여자의 57%가 여성이며 석사학위자의 60%가 여성이지만 그중 포춘 500대 기업의 CEO는 21명(4%)에 불과하며 주요 대기업 관리자의 17%, 하원의원의 18%만이 여성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올 것 같다.

## 철도건설조직 최초의 여성 관리자가 되다

철저한 남초 집단인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또한 업종의 특성상 여직원의 수가 아직 10%에 불과하며 최근까지도 리더십 등을 이유로 여직원을 관리자 자리에 앉힌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부끄럽게도 여성 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현 CEO 취임 후 직위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부·처장 등 관리자급에 공석이 생기면 경쟁지원토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로 본인이 재무전략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철도건설조직 1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관리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이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직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주어진 기회에 달려들었던 것 같다.

매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유일한 여성 관리자로서 CEO의 질문공세를 받기도 하고 사내 제안 심사 등에 재무분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재무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희소성에 의해 다른 남자 직원들보다 더 바빠진 것도 사실이다.


과거 실무자급인 차장 시절에는 내가 맡은 업무만 완벽하게 잘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부장으로서 부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대외 업무 등이 주어짐에 따라 주말에도 업무를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가장 여직원 처우가 공평하다는 공공기관인 공단에서도 과거 여자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차별을 받고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유리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아무리 두껍고 단단한 강화유리천장이라도 식구들의 배려와 국가 정책 지원이라는 튼튼한 헬멧을 쓰고 점프를 한다면 서서히 금이 가서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갑고 강인한 이미지의 철도건설에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여성의 창조성이 결들여진다면... 한 푼이라도 내 돈처럼 알뜰하게 아끼는 현명한 주부의 살림솜씨로 여성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기여한다면 공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공단에 근무하는 여성 후배들 및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

해 준비 중인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일은 여자라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렵더라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적극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포진해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미래는 그래서 더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 III PART

## 고졸채용/ 청년인턴

---



1

##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하면 나이 들어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어려울 때 네 아빠 연금 못 냈던 것 다 내야겠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어머니께서는 신문 1면에 대문짝만 하게 난 기사를 보며 무심코 한 마디 던지시더니 바로 실행에 옮기셨다. 집 앞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납부예외로 해놓았던 아버지의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지만 임의가입을 하셨다. 이곳이 나의 운명이 될 줄이야.

### 우연히 얻게 된 첫 번째 기회

조금 있으면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지 1년이 된다. 사실 내가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이다. 사범대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4학년 때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된 취업준비를 해 보기

도 전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은 쌓지도 못하였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허송세월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 근처에 있던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추가채용에 지원하게 되었다. 청년인턴 면접이라고 하여 만만하게 보았는데 면접위원 3명에 평가표까지 모든 형식이 갖춰진 면접을 보았다. 진땀 빼는 내 생애 첫 입사면접이 끝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 접해 보는 낯선 일들이었다. 업무의 대부분이 민원전화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법부터 배웠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받는 법을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배웠다. 근무하는 4개월 동안 업무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 철판 깔고 얻은 두 번째 기회

하지만 자신감만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4개월의 짧은 인턴생활을 끝낸 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에 실패하고, 나는 또 다시 국민연금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창피하게 거길 또 지원하냐.”는 반응뿐이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직원들이 다시 온 나를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 오만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걱정과 달리 모두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렇게 7개월 동안의 인턴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채로 업무를 시작했던 지난 4개월 동안의 인턴생활

과는 좀 달랐다. 지역본부로 출장 가서 청년인턴용 교재로 3일 동안 직무 교육도 받았다. 이제 민원전화가 와도 일반적인 상담은 겁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지원팀에서 리플릿을 관리하고 있어, 틈틈이 각종 리플릿과 책자들을 읽어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국가에서 하는 제도라서 복지와 관련되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점이 개인연금과 차이 나는 매력으로 느껴졌다. 알면 알수록 좋은 제도라는 것을 느껴 국민연금을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였다. 이모들은 임의가입을 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고쳐주었다.

행정지원팀은 지사 운영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라 전산관련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전산관련 서적을 사무실에 갖다 놓고 틈틈이 공부했다. 나중에 전산문제는 증상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었다. 또한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직원이 아닌 인턴이기에 유연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노후설계 강의를 하는 곳에 따라가서 보조업무를 하기도 하고, 여러 홍보행사에도 참여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자로 구성된 연금나눔이 자원봉사단과의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것에 웬지 모를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 두 번의 기회가 준 도전정신

“제가 해볼게요.” 내가 인턴생활 동안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정말 할 줄 아는 거야? 모르는데 해보겠다는 거 아니지?” 이런 나를 보고 직원들은 걱정스런 눈초리로 보셨지만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항상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부딪쳐 보았다. 처음에는 막상 난관에 부딪히면 ‘괜히 한다고 한 것 아닐까.’ 라는 후회가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에는 해내고 말았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임했다.

7개월간의 두 번째 인턴생활이 끝나고 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좋은 취지로 하고자 하는 일인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겠다고 하였다. 도서관리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엄청난 양의 도서를 보고 예전 같았으면 외면했을 일인데, 그동안 인턴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무모한 자신감으로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한 끝에 4,000여 권의 책을 분야순, 작가순, 작품순으로 구분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라벨을 출력해 붙여서 전산으로 대출/반납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매일 혼자서 하느라 작업기간이 5개월 넘게 걸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변 동료도서관에 전화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언을 얻어가며 작업을 했다.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 작업이 끝날 즈음 국민연금공단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났다.

## 세 번째 기회가 주는 생일선물

2012년도 하반기 채용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곳저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며칠 있으면 채용공고가 날 것이니 준비를 해두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내 생일날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났다.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5개월 이상이면 ‘서류전형 면제’라는 가장 큰 혜택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생긴 청년인턴 전형 덕분에 필기시험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어 한결 수월했다. 면접 준비에도 청년인턴 생활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두 번에 걸친 인턴생활 동안 숙지했기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내가 근무했던 안양과천지사에 가장 먼저 전화드렸는데 직원들께서 가족처럼 기뻐해 주셨다. 근무했던 지사에 합격 소식을 들리면서, 드디어 연금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항상 격려해 주셨던, 시험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챙겨주며 공부방법을 알려주셨던, 채용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바로 알려주셨던 소중한 40여 명의 멘토들에게 드디어 맺은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 내 생애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이었다.

제천에서 2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조별 활동을 할 때 각 조별로 청년인턴 출신이 2명 정도 포함되게 골고루 구성되었다. 이미 인턴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겐 생소한 직무 관련 용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근무환경, 복지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인턴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인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2010년도 첫 번째 인턴생활을 마치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에 ‘아니오’를 선택했다. 청년인턴제도가 채용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 잠시 거치는 단기계약직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2011년도 두 번째 인턴생활을 하면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청년인턴 전형이 생기면서 채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을 하면서, 일을 하느라 취업준비에 소홀하여 정작 취업에 실패할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청년인턴 제한경쟁 전형’에 ‘서류전형 면제’라는 큰 혜택으로, 일을 하면서 남들처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지 않고도 필기시험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또한 먼저 직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어, 체험하면서 취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가, 출장 처리가 가능해,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해서 취업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청년인턴제의 매력이다. 두 번째 인턴생활을 종료하면서 한 설문조사에서는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한 표를 주었다.

하지만 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공공기관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청년인턴 경험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서류전형 면제’, ‘면접 시 우대’ 등 천차만별이어서 기관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든다.

2012년 12월, 입사하여 성남지사로 발령받고 인턴 경험을 되살려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직원이 되고 청년인턴 채용문서를 보다가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생긴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다.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 준비가 녹록지 않아서 ‘생겼으면…….’했던 제도이다.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것 같아 보기 좋다.

3개월간의 시보 기간이 지나고 호봉 산정이 될 때 인턴경력을 70% 인정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이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면 호봉 산정 시 경력도 인정해 주고 남들보다 회사 분위기에도 익숙해 다니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청년인턴 생활은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을 훌륭한 경험이었다. 청년인턴제도, 그것은 내가 누린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2

## 꽃들에게 희망을

박○○/공무원연금공단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 즐겁다. 자꾸 웃음이 나고, 뽀족 구두에 핸드백도 이제 제법 익숙하다. 오늘따라 건물에 비친 내가 예뻐 보인다. 나는 소위 ‘낙바생’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었다. 정말이지 ‘스물하나’의 여고생인 나에게 취업은 통과해야 할 바늘구멍이었고, 나는 낙타였다.

### 웃어라 ‘낙타’

다섯 살, 세상 궁금한 것은 많고 무서운 것은 별로 없는 나이. 그 시절의 나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공장의 기계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아저씨들이 뭔가를 밀어 넣으면 척척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내 손을 밀어 넣을 만큼. ‘덕분에’ 나는 일찌감치 손가락 길이가 다양한 원손을 갖게 됐다.

엄마는 그런 나를 검도장에 보냈고, 나는 매일 울었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도 검을 쥐 손에 힘이 없으면 죽도가 ‘퉁’하고 튕겨 오히려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실컷 맞아보니 느낌이 왔다. 내가 맞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손아귀의 힘’이라는 것을. 엄마가 나를 검도장에 보낸 진짜 이유를.

이후 검도 실력은 날로 늘어 중학교 때는 선수의 길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검도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친구들의 고민 상담이었다. 이 소질을 잘 살리면 나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친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체고 대신 특성화고를 선택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가장 잘하는 여고생이 됐다.

심리학도를 꿈꾸며 친구들의 고민에는 해결책을 척척 잘도 제시하던 내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변비’. 두 차례 수술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휴대용 무통주사 없이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다. 조직검사를 받으니 치루가 아니라 ‘횡문근육종’이라는 소아암이란단.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했고,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밀었다. 그러는 동안 친구들은 3학년이 됐고, 종종 찾아와 고3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들려줬다. 그런 날이면 영락없이 꿈을 꾀다. 친구들은 저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악몽을.

또 꿈을 끝까 무서워 새벽까지 옆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일을 마친 아빠가 들어오셨다. 병원비라는 큰 짐을 지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셨던 아빠. 쪽잠이라도 달게 주무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악몽은 그 짧은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아빠를 괴롭혔다. 그런 아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프기 전과 똑같이 환한 웃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뿐이었다.

##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긴 밤이 가고 아침이 오면 나는 운동장을 걸었다. 한 걸음 걷고 쉬고, 두 걸음 걷고 앉고, 조금 더 욕심냈다가 엄마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 오기의 연속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한때 검도 선수를 꿈꾸며 쌓았던 체력은 항암 치료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지만 인내심만은 끝까지 우정을 지키며 나를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휴학 2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맞는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은 처음과는 많이 달랐다. 두 살 어린 동생들과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내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했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모조리 읽고 모았다. 학교 모의면접은 빼놓지 않고 참여했다. 전교생 앞에서 면접을 보려면 눈꺼풀부터 심장까지 어디 하나 안 떨리는 곳이 없었지만 단점을 알고 자신감을 얻는 데 그보다 좋은 경험은 없었다. 200개에 달하는 나만의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도 모의면접 경험을 통해 다듬어졌다.

또 처음 보는 면접관 앞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무서운 선생님과 친분이 없는 후배들을 찾아다니며 면접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덕분에 내가 살아온 스무 살 인생을 전교생이 알게 됐다. 그리고 나니 오히려 후배들도 더 따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3개월에 한 번 통원

치료만 해도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이다.

## ‘착한 기업’의 바늘귀를 찾아서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을 발판으로 고졸채용의 문이 넓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친구들은 이왕이면 그 문이 크고 안정된 회사로 연결되길 바랐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에 가고 싶었다.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나의 왼손이지만 남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축될 때가 있다. 각별한 시선이 느껴질 때도 그렇고, 뭐든 남들만큼 하려면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때도 그렇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 내고 나의 왼손이 오른손과 호흡을 맞춰 600타를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놀란다. 검도 유단자라는 것까지 알면 더 그렇다. 심지어는 타고난 밝은 성격까지도 많은 칭찬을 받았다. 물론 ‘아프고 장애가 있으면 다 어두워야 하나 뭐!’ 하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칭찬과 격려는 언제나 나를 이끈 힘이었다. 그리고 소아암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남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봉사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의 바늘귀를 통과하고 싶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을 만났다. 선생님으로부터 공단을 추천받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까 궁금해 공단 홈페이지를 찾았다. 연금으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36만명에 달하는 퇴직공무

원과 공단 임직원이 함께 펼치는 봉사 스케일에 비할 수는 없었다.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일반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인성면접을 거쳐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4월 8일. 어찌나 초조하던지 6시도 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새로고침 단추를 수백 번도 더 눌렀다. 그리고 고졸인턴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으며 눈물이 났다. 후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같이 기뻐했고, 한걸음에 달려오신 선생님들은 나보다 더 많이 우셨다.

## 꽃들에게 희망을


7월 15일 드디어 첫 출근. 새 옷에 새 가방, 새 구두, 거기에 새 마음까지 온통 새것으로 무장했으나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자꾸 앞섰다. 그러나 내 걱정이 괜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OJT를 담당했던 선배님들도 고졸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교육하시는 걸 보며 나 또한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회계업무를 맡고 있다. 학교에서 제법 배웠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목표는 오늘 새로 배운 것을 내일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야자’ 대신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을 때, 두 번째 월급을 받아서 할아버지께 혈압계를 사드렸을 때,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갈 때, 나는 내가 어른이 된 걸 느낀다.

물론 ‘친구들 대학 다닐 때 회사에 다니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한다.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안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값진 것들을 배운 것 같아 조금 남아 있던 미련도 날려버렸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지금의 일에 더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 먼저 어떤 토끼를 잡을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실 나는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해야 남들만큼 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도 했으니 분명히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이제 막 피어나는 꽃과 같은 나의 친구와 후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것은 스물한 살의 여고생이자 새내기 직장인인 나의 꿈이다. 

3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청년인턴

윤○○/국민연금공단

“반갑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하는 국민연금 수원지사 윤○○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울을 보며 고객 응대 인사 멘트를 점검합니다. 사실 점검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외치는 암묵적인 파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재수생 시절, 청년인턴이라는 돌파구를 찾다

지난 2월, 즐겁지만은 않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앞길이 정해지지 않은 채 졸업 학사모를 써야 했습니다. 대학교 재학시절 별다른 꿈이 없었던 저는, 졸업 전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야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여러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입사지원서를 넣었고 결과는 볼 보듯 뻔하게도 실패. 결국, 흔히들 이야기하는 ‘취업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치열해질 대로 치열해진 현재의 취업 시장에서 제 스펙은 평범하다 못해 남루해 보였고, 계속해서 날아오

는 불합격 통지에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암 투병중이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되었고 취업 의지가 꺾인 채 갈 길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뒤 어느 날, 어머니의 연금 가입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유족연금 등의 안내를 받고 일어서던 찰나, 상담 내내 친절했던 직원분은 제게 “고객님, 힘내십시오.”라며 짧지만 정말이지 따뜻하게 느껴졌던 끝인사를 건넸고, 저는 알 수 없는 감사함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진심으로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그 말 덕분에 힘들었던 마음이 ‘힐링’되었던 경험은, 제게 ‘고객을 섬깁니다’라는 공단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었고 비로소 나 또한 다른 고객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아니지만 꿈이 담겨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야기했고, 마침내 청년인턴으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숨기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3일간 사전 직무교육을 받고 부서로 배치될 때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큰 소리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선배님들처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밝게 맞아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긴장감은 빨리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 업무량이 많은 공단의 특성상 일주일 뒤 바로 실전 업무에 투입되었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선배님과의 멘토링에 힘을 얻어 ‘소득월액 입력’을 첫 업무로 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소득월액 관련 업무 이외에도 당연적용 사업장 신고서 입력, 민원 안내, 안내문 발송, 외부 홍보활동 등 지사의 여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은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정직원 채용 시험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서 일군 가장 큰 수확물, ‘꿈’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인턴으로 지내는 8개월을 자격증 취득이나 토익점수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토익점수 향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규직원이 되기 전 실전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취업시장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비즈니스 스킬,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었습니다.

소속 부서 이외에 공단 내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도 인턴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소속 부서 이외에도 홍보 파트의 지원인력이 되어 대외활동을 하면서 적성과 관심 분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멘토들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동기 인턴들과의 정보 교류는 물론,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취업준비를 할 수 있고, 부서 선배님들께서는 업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응원해주십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인턴의 입장에서 본부장님과의 점심식사 또는 티타임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임원진의 마인드를 접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말씀해주시던 “Stay hungry”와 “Back to the basics”는 이제 저의 생활신조가 되었습니다.

## 청년인턴을 위한 TIP

끝으로, 청년인턴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청년인턴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주체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

주어진 업무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는 것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할당 업무를 끝낸 후 앞자리, 옆자리의 선배님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하며 다가간다면 경험은 두 배, 배움은 세 배, 선배님들의 사랑은 열 배가 됩니다.


둘째, 복무관리 사항을 숙지하기!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층 일자리 마련 대책 중 하나로, 청년층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업무 수행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외부 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 혹시나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떨쳐버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험이나 취업박람회 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가로 처리되며, 그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조퇴 등 사내 규정을 숙지하면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을 200% 활용하기!

얼마 전 신문에서 ‘경기 불황으로 실무형 인재가 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원자들의 어학, 학점, 자격증 등 스펙에서의 변별력이 사라지고, 경기 불황 탓에 기업에서는 준비된 인재를 필요로 하면서 인턴 수료자에게 서류전형 등 입사 지원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청년인턴들은 본 기관 이외의 타 기관에서도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해당 공공기관에 잘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어떤 기관, 어떤 기업에 잘 맞을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 경험이 단순히 이력서상의 한 줄에만 그치느냐 남들과 차별을 두는 경쟁력이 되느냐는 본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오늘도 파이팅!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8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7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턴사원 비중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6%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기업 차원에서 청년인턴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진 현실을 대변합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각 기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역량 발휘에 매진하는 우리 청년인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도 여러 기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인턴 여러분, 앞으로 더 성장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4

## 국민이 행복한 무한도전

권○○/한국수자원공사

저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로 찢먹이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고물장사를 하시는 조부모님께 맡겨져 자랐습니다. 생업에 바쁜 두 분은 하루종일 고물을 주으러 다니시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오곤 하셨고, 저는 주로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척추장애가 있는 할아버지께서는 아주 작은 체구셨지만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커서, 장애에도 불구하고 매일 힘든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자상한 조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에 구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역경의 반복과 끊임없는 도전

그러던 중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저를 방황하게 만들었고, 학교 성적도 하위 20%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무렵까지 목표 없이 방황하던 저는 취업을 목표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큰아버지

의 권유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지식이 부족한 채 의욕만 앞섰던 저에게 수업시간은 제 자신의 초라함과 한심함을 확인하는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저를 키워주신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장래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던 큰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말자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단기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들부터 철저하게 반복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처음으로 2등을 하게 되었고, 그 후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어 그 다음 시험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어 1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라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되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세상 모든 일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학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저녁 여전히 구부정한 채 초라하게 늙으신 할아버지께서 고물을 주워 들어오시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고 자식과 손자 때문에 애달파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취업을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목표를 세워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K-water에서 고졸자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제가 졸업할 때는 학교 정문에 ‘권○○, K-water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 ‘고졸인재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자신감

입사만 하게 되면 ‘직장인’으로서 안정된 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신입사원 연수 후 부서배치 첫날부터 저는 갑자기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먼저, 직장생활은 학교와는 달리 낯설었고, 업무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입사한 K-water에서는 고졸사원들의 조직 적응력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입사 6개월 동안 각종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그리고 현업 OJT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K-water의 회사 내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업무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집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별로 개별 멘토의 지도 아래 현업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인턴기간을 ‘회사 적응, 업무 이해, 비전 수립’ 3단계로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성과발표회를 통해 담당업무를 이해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주간의 글쓰기 프로그램과 3회에 걸친 스피치 특별 지도는 가장 큰 부담이 되었지만 반대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중 하나인 국악 난타 활동은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악 난타는 저를 포함하여 참여한 7명 모두가 인턴십 과정을 통해 처음 접한 생소한 분야였는데, 약 10주간 열정적으로 참여한 결과 나중에는 5,000여 명이 넘게 참가한 ‘2013 광주, 전남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초청되어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기들과 함께한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소셜 멘토링’을 통한 인간적 성숙

저는 고졸사원 소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학생 수가 많아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지도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water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지닌 여러 분야의 선배들을 멘토로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SNS와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셜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멘토들과의 교류를 통해 단기간에 회사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멘토들 또한 낮은 연령대의 멘티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셜 멘토링 프로그램 중 고객사업장 방문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낙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서는 나만의 고민에서 벗어나 주위를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경험

하여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모교인 광주전자공업고와 ‘2013 광주, 전남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에서 취업성공사례 발표자로 선정되어 이제는 제가 반대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저의 취업 경험을 들려주는 값진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다

지난 9개월간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인생 로드맵을 처음으로 작성해 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4년 비전 보드 실행 계획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현재의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도전의식과 미래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해주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인생을 인간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직 8급으로 근무중이지만, 제 담당 분야의 업무를 익힌 후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자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분야로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아직 빈칸으로 남겨진 40년의 회사생활을 생각하면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기대감에 설렙니다.

## 국민이 행복한 무한도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에는 학창시절 한두 번의 실수로 기회를 놓치면 젊은 나이에 좌절하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K-water의 고졸채용을 통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저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시기에 고졸채용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고졸채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어려움에 쓰러져 누군가를 원망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에서 본인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실패자가 되던 과거와는 달리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국민이 행복한 무한도전’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면, 주변을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손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습니다. 

5

##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

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축 합격’ 기대하지도 않았던 합격통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 왔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과연 나를 필요로 할까? 반신반의하면서 면접 결과를 기다렸는데 합격이란다. 공단 인턴생활 때 느꼈던,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다 고쳐보겠노라고 면접에서 당돌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혹시 면접관들이 불쾌해 하지나 않았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가 합격이란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와서 취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지금, 고졸자 취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고졸자로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름대로 소박한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던 작년 초, 중간고사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대학을 가기 전에 사회 경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다. 그와 동시에 내미신 한 장의 서류엔 지금 내 직장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명이

씩어 있었고, 고졸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에는 취업에 대해 회의적이었기에 조금 거부감을 느꼈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이 마음에 걸려 조금이나마 내 대학등록금도 벌고 사회 경험도 해 보자는 생각에 입사지원서를 넣게 되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학업과 친구들이 주는 평온함에서 눈길을 돌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에 채용공고를 보기 전까지는 사회나 공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 고졸 인턴사원으로 첫발을 내딛다

인턴 채용은 정규직 채용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을 보게 됐는데 첫 면접인지라 떨면서 면접장에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미소 지으며 질문해주시는 면접관님들의 배려에 나 또한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비록 목소리는 떨렸으나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얼마 후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먼저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무사히 출근을 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붙어 있는 성함을 기억하며 내 노트에 한 분씩 적어나갔다.

고졸 취업생이 신기하신지 가끔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도 옆 자리에 계신 포근한 인상의 과장님께서 자주 말을 걸어 주시고 업무도 가르쳐 주셨다. 다만 정직원이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기에 많은 업무를 배우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받으며 내 욕심을 누르

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턴 6개월 동안 퇴근 때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어 뭔가 항상 허전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회사 문을 나서곤 하였다. 퇴근 이후에도 남아서 자신의 일들을 조용히 추진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나에게서는 너무나 정겹게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나만의 업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였던 것 같다.

고졸 인턴이란 것이 사실 정상적인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젊은 날에는 캠퍼스 생활도 즐기고 명동이나 신촌 거리에서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청춘을 즐겨야 하는데,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사회 경험을 시작했고 일과 이후에나 주말을 이용한다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공단은 2015년에 원주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때는 원주에 있는 야간 대학교에도 다닐 생각이고 나만 열심히 한다면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에 따라 나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 갑자기 직장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는 상하관계나 개개인의 책임이 비교적 간단하다. 학생은 자신의 내신과 행동에만 책임을 지면 되었고, 상하관계는 크게 선생님과 학생으로 나뉜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마음껏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배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금 더 큰 사회는 복

잡한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하며,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했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보기에조차 좋지 않다. 학교와 직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 나가야 회사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이 상사의 무차별적인 폭언을 들으며 회사를 그만두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다니는 걸 보면 나는 정말 직장을 잘 선택했고 선배들도 잘 만난 것 같다. 인턴 때에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 챙겨 주시는 선배님을 만났고, 정규직이 된 지금에도 좋은 상사를 만나서 업무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언정 주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은 없다. 오히려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과분할 정도라고 할까.

### 인턴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공단의 인턴 과정을 거치고 고졸자로서 공단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항 등에 대하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적어본다.

첫 번째, 고졸자로서 청년인턴 근무 중 경험한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되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다.

업무 특성상 나는 서류정리 및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19년 동안 만나본 사람이라고 해 봤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이웃

및 친척들이어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친구의 입장에서 어리광만 부리고 배려를 받는 데 익숙해진 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민원은 두렵기 그지없었다. 얼굴 근육은 미소 지어야 한다는 뇌의 통제를 벗어나 어색한 미소를 띠고 말았고, 민원으로 오신 고객님께서 단번에 내가 인턴직원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오히려 다독여 주시고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셨다. 이런 분을 첫 민원인으로 맞았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다른 인턴들이 민원을 받으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베풀어야 할 배려를 오히려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그런 떨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타인의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첫 민원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나는 회사에서 받은 업무노트 제일 앞 페이지를 열어 배려와 미소라고 크게 적어 넣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다양했다. 우울증에 빠져서 말동무가 필요해 방문하신 분, 화가 나서 오는 분, 직원보다 업무를 더 잘 알고 오시는 분 등 정말 유형도 가지각색이어서 그때마다 순발력이 또한 필요했다. 내 말이 한 마디씩 나올 때마다 얼굴색이 변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내 말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책임의 무게는 업무 파악에 힘쓰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나니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니 만큼 현행 기초교육보다 좀 더 세심한 민원 응대요령 등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욱 절실함을 느꼈다.

두 번째, 전산 프로그램 개발 전공은 아니었지만 고졸 청년인턴으로서

의 경험이 공공기관에 취업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턴으로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심코 넘겨 버렸던 19년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마 인턴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에 갔더라면 대학생생활도 평온함에 물들어 과제 하나에 울먹이고 시험을 멀리하며 그럼에도 앞으로는 평온할 것이란 착각의 바다 속에 잠겨 있지는 않았을까? 아마 십중팔구 대학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찾지 못한 채 주어지는 과제나 시험에만 힘을 쓰고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대학등록금과 학비가 비싼 만큼 얻어야 하는 것이 많을 텐데 단지 취직만을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지난 몇 달 동안 정이 든 공단에서 고졸채용을 한다는 공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나는 그래 이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전산직에 지원하였고, 디자인 전공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천운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발표 전날 꾸셨다는 길몽 덕분인지 몰라도 인턴생활을 끝마침과 동시에 공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입사 초기에 현 부서의 업무도 이해해야 하고 웹, 자바 등 프로그래밍 언어도 알아야 하는 전산직이라 너무나 힘들었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고졸채용/청년인턴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옆에 있는 선배님들이 정말 귀신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죽기 살기로 업무처리 요령을 숙지하고 프로그램 개발 방법은 선배님들을 괴롭혀 가면서 배워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선 것 같다. 남들 같으면 2년, 3년 걸려야 개발이 가능한데 김주임은 정말 대단하다고 선배님들이 칭찬해 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조연도 해주시고 업무도 가르쳐 주시는 선배님과 나태해질 때마다 따끔한 채찍질로 일깨워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간혹 후배들이 내게 후회하지는 않느냐고, 어렵지는 않느냐고 물어올 때가 있다. 하지만 내 대답은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업무 스트레스나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박한 행복들이다.

## 미래는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갓 졸업한 고졸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다.

만일 대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언제 취업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반드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에 취직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아직은 안정적인 길을 아니지만 흥미진진한 모험길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과거의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고등학교 생활, 공단에서의 즐거운 인턴생활이 있었기에 공단 직원이 되었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도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는 내가 있는 것 같다.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고졸사원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달려갈 것이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생겨나면 언제든지 학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젊은 만큼 더 많은 일들을 겪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험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접하고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선택이 나의 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람차게 보낼 것이다. 

6

## 청년인턴, 넝쿨째 복이 굴러 오다

우○○/근로복지공단

2012년 2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생’에서 ‘무직’으로의 우울한 신분 변동이 있었던 나는 2012년 7월, 우연한 기회를 잡아 ‘청년인턴’이 되었고, 그 값진 경험들을 발판삼아 2012년 12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의 행복한 신분 변동을 맛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한 방은 ‘청년인턴’ 신분으로 살았던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대졸자들에게 청년인턴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많다. 소위 말하는 고스펙 쌓기, 즉 어학점수나 자격증 등을 만드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치열한 취업전쟁에서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펙에만 집착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보면 현장에 나와 직접 실무를 경험해보는 것만큼 값진 일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나마 내가 백수에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1년 동안 느끼고 배운 것들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반짝이는 인생의 제2막을 열어준 이 시간은 ‘청년인턴’으로 넝쿨째 복이 굴러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 시월드만큼 쉽지 않은 잡월드(Job-World)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공부만 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 20대, 대학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면서 이것만큼은 지키자고 다짐한 것이 ‘경험하자’ 였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고, 그 결과 학과 학생회장, 농활 팀장, 언론학회 회장 등 리더로서의 경험과 2년의 학생회 활동, 10번의 농활, 3년의 동아리 활동, 각종 캠프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주어진 역할들에 책임을 다하면서 학점이나 토익, 자격증 등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4년 동안 하고 싶은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도 틈틈이 취업에 대비한 것이다. 남들이 놀랄 정도의 고스펙은 아니었지만 내세울 만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된 대학교 4학년을 시작할 때의 다짐은 모두가 소망하는 ‘졸업 전 취업’ 이었다. 하지만 서류전형부터 줄줄이 불합격하면서 목표 달성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결국 졸업하는 그 날까지도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앞으로 달라질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 인생을 80세로 보았을 때 스물다섯의 내 시간은 고작 7시 30분,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 공공기관으로 취업의 방향을 잡고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 나갔다. 그와 동시에 공공기관만 집중적으로 원서를 썼다.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잡을 수 있

었지만, 기관별로 상이한 시험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나에게 맞는 기관과 채용 프로세스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교훈을 얻으며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근로복지공단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선뜻 지원하지 못하고 고민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지사가 없기도 했거니와 필기시험 준비에 좀 더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부터 줄곧 관심을 두고 있던 곳이기도 했고 직접 실무를 겪어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도전하게 되었다.

공채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경쟁률이었지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꽤 긴장했던 것 같다. 기다리던 합격소식을 받았을 때는 진짜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특히 대학의 자유로운 조직이 아닌, 구조가 잡혀 있는 사회의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부딪쳐보기로 마음 먹었다. 집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웠던 할머니댁으로 잠시 보금자리를 옮겼고 2012년 7월, 그렇게 복이 조금씩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 청년인턴으로 넝쿨째 굴러 온 복

‘근로복지공단 청주시사 재활보상부 청년인턴 우○○’은 ‘그냥 우○○’이 아니었다. 업무분장표, 좌석배치표에 어떠한 책임이 부여된 이름으

로 자리하고 있었다.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기분 좋고 신기했지만 긴장도 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인턴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5개월 동안 민원서류 접수와 스캔, 복사, 편철 등 사무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하지만 공단의 특성상 민원서류 접수는 산재근로자의 보상과 요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었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작게나마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고 한 달에 5,000건 이상의 민원서류 접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접수의 신' 으로 불리기도 했다. 업무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다. 출퇴근에 한 시간씩 걸렸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곳곳을 정리했고, 사무용품을 미리 챙겨둔다거나 매일 파지를 대신 모아드린다거나 소소한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업무에 적응하고 낯설었던 산재보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다. 티프한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고된 일도 종종 있었지만 굉장히 능동적이며 보람 있는 직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점점 더 열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학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었고 직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채용과정을 밟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인턴을 수료하는 날이 최종

합격 발표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 원서를 일찌감치 제출하고 바로 필기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응원과 배려 속에서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씩 합격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좋아해주시고 축하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외로운 싸움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했다.

최종면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긴장됐지만 그간의 인턴 경험을 살려 공단의 미래에 득이 될 지원자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다. 인턴생활을 통해 실무를 직접 겪어보면서 공단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기본적인 프로세스 또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실한 막내로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미 소속감이 충만해 있었던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턴을 수료하는 날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2년 12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6급 최종합격은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고, 청년인턴으로부터 시작된 복은 내게로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 지사의 복덩이, 공단의 복덩이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만큼이나 기뻐던 것은 꼭 다시 함께 일하고 싶었던 정든 직원들이 있는 청주지사 재활보상부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신입이 근무처의 분위기를 알고 있고 업무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인턴 때 접수만 하던 것과 사명감과 책임감이 가중된 실무는 차이가 있었지만 인턴 경험이 있었기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아직은 배울 것이 더 많은 신입이지만 공단에 대한 애정이 넘쳐 현재 사이버홍보단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우수 홍보단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공단을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

어느덧 입사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인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도 승급되었으며 지금은 두 번째 인턴 후배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불과 작년에 내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도움도 주고 최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청년인턴의 자리에서 사회와 직무를 미리 경험한 것이다.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닮은꼴 굴러 온 복을 무럭무럭 잘 키워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지사에서, 더 나아가 우리 공단에서 최고의 복덩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청춘들에게 청년인턴은 시간낭비가 아니라 충분히 나를 투자해볼 만한 기회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 도전하여 닮은꼴 굴러 올 본인만의 복을 잡기 바란다. 

7

## 한계는 없다. 준비하고, 도전하자

유○○/한국공항공사

2012년 12월 21일, 한국공항공사 고졸 사원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탈락해도 상처받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합격자 확인 버튼을 눌렀고, 결과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낭랑한 멘트였습니다.

‘신의 직장’,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당당히 입사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해봤자 안 되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 졸이던 시간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저도 모르게 기죽고 좌절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기에 한국공항공사 입사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학교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취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대학교에 들

어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했고, 제가 당신들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 살길 바라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과는 다른 저만의 강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강점은 전문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도전 정신과 성취감은 제게 큰 원동력이 되었고, 현재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신 성적이나 자격증만 믿고 순간 자신 만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갖고 여러 기업에 문을 두드렸지만, 제게 깨달음을 주는 것인지 취업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후회하고, 점점 마음가짐도 나약해졌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하자고 다짐하며, 준비하던 제게 한국공항공사 인턴사원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지도 없던 터라 생활할 곳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끝내 내린 결론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대 하나, 책상 하나인 작은 방에서 저는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도 첫 출근했던 날을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머리는 묶을까 풀까를 수백 번 고민하다가 긴장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

우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선배님들께서는 정말 가족 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에게 선배님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하면 따끔하게 혼도 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경험이 생겨 자신감도 붙었고,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을 알고 시작하는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원으로서 회사의 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입사를 목표로 세우고 노력하던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고졸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할까 많이 걱정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날 믿어주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도 저한테 실망할까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공부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잠도 줄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면접 때 떨지 않기 위해 모의면접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간절히 입사를 바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간절히 원하던 한국공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입사 후,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인턴이라는 신분을 넘어 이제부터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욕심도 생겼습니다. 고

졸의 한계를 깨고 싶다는 생각에 현재 회사에서 대학 진학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교 진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차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입사 후 나이 나 학력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도해 보기도 전에 생긴 열등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전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 보다는 부러움의 시선으로 저를 대해 주십니다.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직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일찍 취업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취업을 반대하셨던 부모님께서 지금은 저의 취업소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항상 현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 40년을 다녀야 할 내 회사인데 현장 구석구석을 몸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비행기가 보이는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지도 4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면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계류장을 뛰어다니며 책상 앞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현장업무에 대하여 배우고,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며 업무 노하우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취업을 선택한 것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40년 후의 제 모습을 그려 보자면, 고졸사원 선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습

니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시기를 먼저 경험했기에 진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졸의 한계를 깨고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다져진 업무지식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고졸자라는 꼬리표는 회사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졸자가 아닌, 고졸자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공부할 것입니다.

###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열려 있다

끝으로, 저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셔야 합니다. 기업의 목표에 맞게 어학 실력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합니다. 기업에서 저희 같은 고졸사원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대졸자와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졸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전형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한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없고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도전하세요. 모두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리한 당신에게 준비하던 나날들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룰 수 있습니다. 

8

## 청년인턴, 새로운 산을 발견하다

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1년을 살았다. 남들처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었고, 수백 장의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중 필기시험을 본 곳은 스무 군데도 되지 않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곳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 등산 준비: 어느 산에 오를 것인가

같은 일상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지쳐갔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2012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 현장. 평소 공공기관에만 입사 지원을 해왔던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박람회에는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몸소 느껴졌다.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면서 나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았고, 수백 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 목록을 간추리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를 경험하여 공공기관에 한 걸음 더 다가

가기로 다짐했다.

## 산행 시작: 어떤 경로를 설정할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에 합격한 나는 지역에 있는 한 지사로 배치 받았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지사를 둘러보면서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지사장님과 면담도 나누었다. 지사장님께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인정보 보안임을 강조하셨다. 또한 늘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청년인턴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며 공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지사장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4대 보험은 나에게 익숙한 단어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처음 접하는 단어였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었다.

담당부서 차장님께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부서 직원들의 업무 분장 내용,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업무들을 알려주셨다.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두꺼운 책을 보면서 제도에 관해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으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며, 민원사례상담집을 참고하여 자문자답하면서 자신감을 키웠다.

이튿날부터 나는 실전에 투입되었고, 민원대에는 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아크릴 명패가 세워졌다. 이로써 공단에서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 것이다.

### 산행 일지: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 기록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신규 신청, 갱신 신청, 등급 변경신청, 그리고 급여종류 변경신청까지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 안내를 다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 절차 안내를 기본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나의 주 업무다. 부수적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나 각종 서류를 재발급해 드리기도 했고, 팩스 확인 및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전산 입력, 우편물 발송 등 사무보조를 맡았다.

공단에는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따로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서에서만 별도로 민원대가 운영되고 있었다. 내가 담당할 민원대는 부서 특성상 내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40~50대였고,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 예의를 갖추게 되었고 친절함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다.

현실 속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공단을 찾아온 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 따뜻한 말들과 위로를 건네는 것, 차 한 잔의 여유를 전하는 것이었다.

모든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부모님 친구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말과 미소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상담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무작정 찾아왔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가 참 친절하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그려.”, “신청은 다 끝났지요? 커피 잘 마시고 가요~”

이러한 고객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내겐 큰 감동이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

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보람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자 나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나만의 청년인턴 다이어리에 기록하였다.

## 정상 도착: 스스로의 성장과정을 발견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서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등급판정위원들이 모이는 등급판정회의가 열린다. 회사에서는 이를 ‘등판’이라고 부르는데 등판이 열리는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아침부터 회의에 사용될 자료들을 복사해 놓고, 회의실을 세팅해 놓아야 하며 동시에 전화민원과 내방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면 더욱 바쁘다. 회의 때 사용했던 자료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모두 파쇄해야 하며, 등급 인정 대상자에 한하여 인정서와 각종 서류들

을 출력한 후, 바인더에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등급 인정 대상자들에게 직원들 모두 전화를 돌린다.

그 다음 날부터는 등급을 받으신 분 혹은 보호자가 등급 결과에 관한 서류를 찾으러 오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기 때문에 내방고객들이 거의 장사진을 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열리는 등판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공단에 적응하여 즐겁게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루는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바인더 작업을 하던 도중, 갱신 대상자들은 바인더가 아닌 소봉투에 넣어도 되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물품도 아낄 줄 알고, 어엿한 공단인이 다 되었다.”고 칭찬하셨다. 또 하루는 직원들이 다 출장을 나가고 차장님과 둘이서 사무실 근무를 맡고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이리이러한 업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셔서 할 줄 안다고 한 후 처리했더니 “이 업무까지 할 줄 알면 우리 부서 업무는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세 업무를 익혔네.”라며 칭찬 해주셨다.

어느덧 산 정상에 오른 느낌이었다. 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듯 기분 좋은 함성이 절로 나왔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일하길 잘 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끔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으리라.

## 하산: 값진 경험을 되돌아보자

어느덧 7개월의 공공기관 인턴생활이 끝나가고 있다. 나는 늘 시작이 중요하듯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3주를 더욱 알차게 보내고 안전한 하산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생활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느낀 점을 요약해보겠다.

첫째, 복장에 신경 쓰자. 청년인턴이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입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는 인턴생활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장을 거른 적이 없다. 직원들과 같은 정장 차림에 사원증 착용은 저절로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도 믿음을 준다.

둘째, 미소를 잃지 말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다. 내가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 역시 미소로 답해 온다. 청년인턴답게 젊음과 미소로 일한다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진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원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친절이 중요하다.

셋째, 멘토를 찾자.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멘토가 절실함을 느낀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차장님이 멘토가 되어주셨고, 주기적인 멘토링은 물론 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셨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청년인턴 경험은 나만의 산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산을 오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이 값진 경험을 많은 취

업준비생들이 겪을 수 있길 바란다. 길 따라 바람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 관리자 · 고졸채용 / 청년인턴

---

2013년 10월 25일 인쇄

2013년 10월 28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인 쇄 상일인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 관리자 · 고졸채용/청년인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代), [www.kipf.re.kr](http://www.kipf.re.kr)